

국어연구원에 묻어보았어요 2001

국어 생활 질의응답 자료집

초 등 용



머리말

사람들은 누구나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매일같이 말하고, 읽고, 글을 쓰면서 살아가지만 말과 글의 소중함 또한 잊고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말과 글은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공기만큼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민족만의 말과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말과 글을 빌려서 쓰는 나라와 민족에 비하면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글을 바르게 쓸수록 우리말과 우리글은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우리말과 우리글을 빛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1년 12월 10일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남기심

일러두기

1. 내 용

이 책은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잘못 쓰는 표기와 발음, 띄어쓰기, 어휘, 외래어를 다루었습니다. 대체로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 표준어에 어긋난 것, 띄어쓰기를 잘못된 것, 유사한 어형 중 구별해 써야 할 어휘,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어려운 문법 용어나 한자어, 긴 문장은 피하려고 했고,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쓰이는 예를 중심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1~6)와, 초등학생의 읽기장, 받아쓰기 공책의 검토를 통해 발견된 문제 항목과,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자주 나오는 질문>과 <묻고 답하기>에서 조회 수가 많은 항목, ‘가나다 전화’로 들어오는 질문 중 빈도가 높은 항목 중에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을 항목으로 선택했습니다.

2. 구성

1장에서는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어긋나기 쉬운 표기 51

항목을, 2장에서는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18항목, 3장에서는 잘못 발음하기 쉬운 7항목을 다루었습니다. 4장에서는 모습이 비슷하거나 뜻이 비슷하여 자주 혼동하여 쓰는 말 33항목, 5장에서는 잘못 쓰는 외래어 27항목을 실었습니다. 각 장 밑에는 가나다 순으로 표제어를 등재하였고, ‘■’를 제목의 표시로 사용하였습니다. 제목은 맞는 표기와 틀린 표기를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1장, 2장, 5장에서 맞는 것은 ‘○’로 표시하고 틀린 것은 ‘×’로 표시하였습니다. 1장은 일화를 들고, 그 일화에서 잘못 쓰는 말을 지적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표제어 옆에 발음을 제시하여 ‘○’와 ‘×’로 맞는 발음과 틀린 발음을 제시하였습니다. 4장에서도 혼동하기 쉬운 두 말을 제목으로 제시한 것은 다른 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두 말 중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므로, 맞고 틀린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문 규범’이란 무엇인가?

‘어문 규범’이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이 있습니다. ‘어문 규범’을 국가에서 정해서 쓰도록 한 것은 말과 글을 쓰는 데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마다 말과 글이 다르게 되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말과 글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꼬치’, ‘꼰만’이라고 불러 주시는 말을 ‘꼬치’, ‘꼰만’으로 적으면 안 되고 ‘꽃이’, ‘꽃만’이라고 적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꽃’이라는 말을 ‘꽃’ 한 가지로 적게 되면 ‘꼬치’, ‘꼰만’처럼 적는 것보다 알아보기가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마다 말이 다르고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 말, 경기도 말, 강원도 말, 충청도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과 같이 지역별로 말들이 서로 조금씩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말을 표준어로 정하여 널리 쓰도

록 한 것입니다.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말을 쓰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도 굳어질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이메일’과 같은, 예전에는 없던 많은 말들이 들어와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어 또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어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에는 이처럼 외래어를 일정하게 적도록 하는 규칙이 있어서 우리말로 받아들인 외래어를 누구나 똑같이 말하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건널 때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어문 규범’입니다.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운전을 하면 큰 혼란이 생기듯이 규칙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말을 한다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어문 규범’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교양입니다.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말을 갈고닦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 례

머리말

일러두기

‘어문 규범’이란 무엇인가?

1. 맞는 표기와 표준어	1
■ 가려고(○) / 잘려고(×)	1
■ 같아(○) / 같애(×) ~ 똑같아(○) / 똑같애(×)	2
■ 거예요(○) / 거에요(×)	3
■ 고마워요(○) / 고마와요(×)	4
■ -고요(○) / -구요(×)	5
■ 곱빼기(○) / 곱배기(×)	6
■ 금새(○) / 금새(×)	7
■ 깨끗이(○) / 깨끗히(×) / 깨끗시(×)	8
■ 꼬이다(○) / 꼬시다(×)	8
■ -이였다(○) / -이였다(×)	9
■ 끼어들기(○) / 끼여들기(×)	11
■ 낚시터(○) / 낙시터(×)	12
■ 나는 슈퍼맨(○) / 날으는 슈퍼맨(×)	13
■ 날아오르다(○) / 나라오르다(×)	14
■ 너머(○) / 넘어(×)	14
■ 늦게(○) / 늦께(×) / 늦께(×)	15

■ 네가(○) / 너가(×) / 니가(×)	16
■ 담가(○) / 담귀(×)	17
■ 돌(○) / 뚫(×)	18
■ 돌부리(○) / 돌뿌리(×)	19
■ 돼라(○) / 되라(×)	19
■ -든가 -든가(○) / -던가 -던가(×)	20
■ 들러서(○) / 들려서(×)	22
■ 떡볶이(○) / 떡볶기(×) / 떡볶끼(×)	23
■ -르결(○) / -르결(×)	23
■ 만듭(○) / 만듭(×)	25
■ (정답을) 맞히다(○) / (정답을) 맞추다(×)	26
■ 머릿결(○) / 머리결(×)	27
■ 멈췄습니다(○) / 멈췄습니다(×)	28
■ 며칠(○) / 몇 일(×)	29
■ 바람(○) / 바램(×)	30
■ 반드시 (얕다)(×) / 반듯이 (얕다)(○)	31
■ 방귀 꺾다(○) / 방구 꾸다(×)	32
■ 배고픔(○) / 배고픔(×)	33
■ 부등켜안고(○) / 부등켜얹고(×)	34
■ 붙이다(○) / 부치다(×)	35
■ 빨개져서(○) / 빨개져서(×)	36
■ 손가락 / 젓가락	37
■ 쌍둥이(○) / 쌍둥이(×)	38
■ 아기(○) / 애기(×)	39
■ 아지랑이(○) / 아지랭이(×)	40
■ 안 먹어(○) / 앓 먹어(×)	41
■ 예쁘다(○) / 이쁘다(×)	41
■ 어서 오십시오(○) / 어서 오십시오(×)	42
■ 오뚜기(○) / 오뚜기(×)	43

- 웬지(○) / 웬지(×) 44
- 있음(○) / 있슴(×) 45
- -장이(○) / -쟁이(×) 46
- 먼지떨이(○) / 먼지털이(×) 46
- -째(○) / -채(×) 47
- 찌개(○) / 찌게(×) 48
- 창피(○) / 창피(×) 48
- 해님(○) / 햇님(×) 49

2. 알맞은 띄어쓰기 51

- 거 봐(○) / 거봐(×) 51
- 넘어질 거야(○) / 넘어질거야(×) 51
- 먹는 데 소금을 쳐라(○) 52
- 만들어야겠어(○) / 만들어야 겠어(×) 52
- 맛있다(○) / 맛 있다(×) 53
- 너밖에 없다(○) / 너 밖에 없다(×) 53
- 갈 때(○) / 갈때(×) 53
- 첫 번째(○) / 첫번째(×) 54
- 스물여섯(○) / 스물 여섯(×) 54
- 이럴 수가(○) / 이럴수가(×) 54
- 왜냐하면(○) / 왜냐 하면(×) 55
- 보물은커녕(○) / 보물은 커녕(×) 55
- 학생입니다(○) / 학생 입니다(×) 55
- 쟁반같이(○) / 쟁반 같이(×) 56
- 질 게 뻔하다(○) / 질게 뻔하다(×) 56
- 축하합니다(○) / 축하 합니다(×) 57
- 한 권(○) / 한권(×) 57
- 흥길동 씨(○) / 흥길동씨(×) 57

3. 바르게 발음하기	59
■ 김밥: [김밥] (○) / [김빡] (×)	59
■ 끝을: [끄틀](○) / [끄출](×) / [끄슬](×)	59
■ 바빠서: [바빠서](○) / [바뻐서](×)	60
■ 밭이: [바치](○) / [바시](×)	60
■ 버스: [버스](○) / [뻐스](×)	60
■ 선릉: [설릉](○) / [선능](×)	61
■ 효과: [효과](○) / [효파] (×)	61
4. 구별해 써야 할 말	62
■ 가리키다 / 가르치다	62
■ 그슬리다 / 그을리다	62
■ 꼬리 / 쫘지	63
■ 넓이 / 너비	63
■ 눈의 종류	64
■ 봉오리 / 봉우리	64
■ 비의 종류	65
■ 늘리다 / 늘이다	65
■ 다리다 / 달이다	66
■ 달라요 / 틀려요	66
■ 마술 / 요술	67
■ 명태의 다른 이름	67
■ 발견 / 발명	67
■ 벌리다 / 벌이다	68
■ 벗겨지다 / 벗어지다	68
■ 비추다 / 비치다	69
■ 별 이름	70
■ 십자말풀이	70
■ 썩이다 / 썩히다	70

■ 식해 / 식혜	71
■ 알갱이 / 알맹이	71
■ 양감질	72
■ 윗웃 / 웃웃	72
■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	72
■ 일절 / 일체	73
■ 잃다 / 잇다	74
■ 입 / 부리 / 주둥이	74
■ 작다 / 적다	75
■ 전통 놀이	75
■ 조리다 / 즐이다	76
■ 쫓다 / 좇다	77
■ 크레용 / 크레파스	77
■ 혼동 / 혼돈	77

5. 바르게 쓰는 외래어 79

■ 디지털(○) / 디지탈(×)	79
■ 로봇(○) / 로보트(×)	79
■ 마요네즈(○) / 마요네스(×)	80
■ 모차르트(○) / 모짜르트(×)	80
■ 바통(○) / 배턴(○) / 바톤(×)	80
■ 바흐(○) / 바하(×)	81
■ 사인(○) / 싸인(×)	81
■ 서비스(○) / 써비스(×)	81
■ 센터(○) / 센타(×)	81
■ 센티미터(○) / 센치미터(×)	82
■ 소시지(○) / 소세지(×)	82
■ 슈퍼(○) / 수퍼(×)	82
■ 에스컬레이터(○) / 에스칼레이터(×)	83

■ 자장면(○) / 짜장면(×)	83
■ 주스(○) / 쥬스(×)	83
■ 초콜릿(○) / 초콜렛(×)	84
■ 커트(○) / 컷(×)	84
■ 케이크(○) / 케익(×)	84
■ 케첩(○) / 케찹(×)	84
■ 크리스마스 캐럴(○) / 캐롤(×)	85
■ 탤런트(○) / 탈렌트(×)	85
■ 텔레비전(○) / 텔레비전(×)	85
■ 파이팅(○) / 화이팅(×)	86
■ 포클레인(○) / 포크레인(×)	86
■ 프라이팬(○) / 후라이팬(×)	86
■ 피자(○) / 피자(×)	87
■ 하이라이트(○) / 하일라이트(×)	87

찾아보기

1. 맞는 표기와 표준어

이 장에서는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맞지 않는 표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른 표기와 표준어를 익혀 바르게 쓰도록 합시다.

■ 가려고(○) / 갈려고(×)

시험이 끝나고 한돌이는 친구와 함께 학교를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친구: 한돌아! 너 이제 뭘 할 거니?

한돌: 응. 집에 가려고 해.

친구: 그냥 집에 갈려고?

한돌: ‘갈려고’가 뭐야, ‘가려고’지.

☞ “집에 갈려고?”의 ‘갈려고’는 ‘가려고’로 써야 맞습니다. ‘가다, 보다’와 같이 ‘-다’ 앞의 말이 받침이 없으면 ‘가려고, 보려고’처럼 쓰고, ‘먹다, 잡다’와 같이 ‘-다’ 앞의 말이 받침이 있으면 ‘먹으려고, 잡으려고’처럼 씁니다. 그런데 ‘가려고, 보려고’나 ‘먹

으려고, 잡으려고’를 자주 ‘갈려고, 불려고’와 ‘먹으려고, 잡으려고’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다, 보다, 먹다, 잡다’에 ‘-(으)르려고’가 붙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으)르려고’는 ‘-(으)려고’를 잘못 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려고, 불려고, 먹으려고, 잡으려고’는 ‘가려고, 보려고, 먹으려고, 잡으려고’로 써야 맞습니다.

가다: 가--려고 → 가려고(○) / 갈려고(×)

보다: 보--려고 → 보려고(○) / 불려고(×)

먹다: 먹--으려고 → 먹으려고(○) / 먹으려고(×)

잡다: 잡--으려고 → 잡으려고(○) / 잡으려고(×)

- 같아(○) / 같애(×) ~ 똑같아(○) / 똑같애(×)

한돌이는 아빠가 사 준 새 운동화를 신고, 신이 나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짝꿍 성현이도 새로 신을 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성현: 한돌아! 우리 아빠가 어제 새 운동화 사 주셨다.

한돌: 그래? 어, 그런데 네 운동화가 내 것과 **똑같애**.

성현: 정말? 어디 봐. 아니야 모양은 똑같지만 색깔이 다르잖아.

☞ “운동화가 내 것과 똑같애.”의 ‘똑같애’는 ‘**똑같아**’로 써야

맞습니다. ‘같아, 똑같아’를 ‘같애, 똑같애’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잘 살아, 내 손을 잡아.”의 ‘살아, 잡아’처럼 ‘같다, 똑같다’도 ‘-아’를 붙인 ‘같아, 똑같아’로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동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에서 ‘똑같아요’를 ‘똑같애요’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살--아 → 살아

잡다: 잡--아 → 잡아

좋다: 좋--아 → 좋아

같다: 같--아 → 같아(○) / 같애(×)

똑같다: 똑같--아 → 똑같아(○) / 똑같애(×)

■ 거예요(○) / 거예요(×)

한돌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쏜살같이 한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돌이는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들고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바퀴벌레를 잡은 한돌이가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한돌: 엄마! 엄마! 제 방으로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잡았어요.

엄마: 그래? 집에 바퀴벌레가 생겼나 보구나.

한돌: 제가 잡았으니, 이제 없을 거예요.

엄마: 그러면 좋겠지만, 바퀴벌레가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야.

4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 2001

☞ “이젠 없을 거예요.”의 ‘거예요’는 ‘**거예요**’로 써야 맞습니다.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는 ‘책상이어요, 책상이에요’처럼 ‘-이어요, -이에요’가 붙고, 받침이 없는 말 다음에는 ‘국수여요, 국수예요’처럼 ‘-이어요, -이에요’가 준 ‘-여요, -예요’가 붙습니다. 그래서 ‘책상’은 ‘책상이어요, 책상이에요’처럼 쓰고, ‘국수’는 ‘국수여요, 국수예요’처럼 쓴 것입니다. ‘거예요’의 ‘거’는 받침이 없는 말이므로 ‘거여요, 거예요’로 써야 맞습니다.

받침 있는 말: 책상이어요, 책상이에요

받침 없는 말: 국수이어요, 국수이에요 → 국수여요, 국수예요(○) / 국수예요(×)

거이어요, 거이에요 → 거여요, 거예요(○) / 거예요(×)

■ 고마워요(○) / 고마와요(×)

한돌이가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전철역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무거운 짐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돌이는 할머니를 도와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한돌: 할머니! 전철역은 절 따라오세요. 그리고 짐은 제가 들어 드릴게요.

할머니: 아유, **고마와**. 그런데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한돌: 아니에요, 짐을 주세요.

☞ ‘고마와’는 ‘고마워’로 써야 맞습니다. ‘고맙다, 가깝다, 아름다다’처럼 ‘-다’ 앞이 ‘ㅂ’ 받침인 말들은 ‘-어’를 만나면 ‘고마워, 가까워, 아름다워’처럼 ‘-워’로 변합니다. ‘돕다, 곱다’만 ‘도와, 고와’처럼 ‘-와’로 쓰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워’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예) 밍다: 밍--+어 → 미워
- 쉽다: 쉽--+어 → 쉬워
- 맵다: 맵--+어 → 매워
- 고맙다: 고맙--+어 → 고마워
- 가깝다: 가깝--+어 → 가까워
- 아름답다: 아름답--+어 → 아름다워

 돕다: 돕--+어 → 도와

 곱다: 곱--+어 → 곱와

♠ 한글 맞춤법 규정 제18항 참고.

■ -고요(○) / -구요(×)

오늘은 개학 날. 한돌이네 반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김한돌! 한돌이는 방학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

한돌: 예. 저는 방학 동안에 가족하구요 저희 할머니 댁에

놀러 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할머니도 뵙고 참 좋았겠네요.

그런데 한돌아, ‘가족하구요’가 아니고, ‘가족하고
요’라고 해야 맞아요.

☞ ‘가족하구요’는 ‘가족하고요’로 써야 맞습니다. ‘가족하고’에 ‘요’를 붙여 ‘가족하고요’로 쓴 것인데, 사람들은 종종 ‘-고’로 써야 할 자리에 ‘-구’를 써서 “너하구 나하구”, “이것 좀 먹구요.”로 잘못 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 “이것 좀 먹고요.”처럼 ‘-고’로 쓰고 [고]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텔레비전을 보고(○) / 텔레비전을 보구(×)

너하고 나하고(○) / 너하구 나하구(×)

■ 곱빼기(○) / 곱배기(×)

한돌이와 동생 한글이는 자장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한돌이와 한글이가 착한 일을 하면 상으로 용돈을 주시거나 자장면을 사 주십니다.

아저씨: 손님! 뭘 드시겠습니까?

아빠: 자장면 두 개는 보통으로 주시고요, 한 개는 곱배기로 주세요.

한돌: 아빠! 저도 곱빼기로 주세요.

☞ ‘곱배기’는 ‘곱빼기’로 써야 맞습니다. ‘곱빼기’의 ‘빼’가 ‘두 배가 되다’의 ‘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곱배기’로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빼기’는 ‘두 배’의 ‘배’와 같은 것이 아니고, ‘구석 빼기, 머리빼기’의 ‘-빼기’처럼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곱빼기’를 ‘곱배기’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제54항 참고.

■ 금세(○) / 금새(×)

오랜만에 엄마와 한돌이, 한글이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한돌이와 한글이는 장난감을 파는 곳에서 정신없이 구경을 했습니다.

엄마: 지하 슈퍼에 가서 채소를 사야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래?

한돌: 예. 저희는 엄마가 오실 때까지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요.

엄마: 금새 갔다 올게. 동생하고 잘 놀고 있어.

☞ “금새 갔다 올게.”의 ‘금새’는 ‘금세’로 써야 맞습니다.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에’의 표기가 살아 있는 ‘금세’로 적어야 맞습니다.

■ 깨끗이(○) / 깨끗히(×) / 깨끗시(×)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입니다. 아빠는 청소기를 미시고, 엄마는 걸레질을 하십니다. 한돌이와 한글이는 각각 자기 방 정돈을 해야 합니다.

아빠: 한돌이, 한글이는 각자 자기 방을 **깨끗히** 정돈해라.

한돌·한글: 네. **깨끗이** 정돈할게요.

엄마: 청소 끝나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 줄게.

☞ “깨끗히 정돈해라.”에서 ‘깨끗히’는 ‘**깨끗이**’라고 써야 합니다. 이것을 ‘깨끗히’나 ‘깨끗시’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이’는 ‘깨끗하다’의 ‘깨끗-’에 ‘-이’가 붙은 말입니다. ‘깨끗하다(깨끗-+-하다) / 깨끗이(깨끗-+-이)’처럼 적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깨끗하다 / 깨끗이(깨끗시×)

뚜렷하다 / 뚜렷이(뚜렷시×)

버젓하다 / 버젓이(버젓시×)

어렵풋하다 / 어렵풋이(어렵푸시×)

♠ 한글 맞춤법 규정 제25항, 제51항 참고.

■ 꼬이다(○) / 꼬시다(×)

한돌이는 방과 후에 집에 바로 가서 동생 한글이와 놀아 주기

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성현이가 자꾸 자기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성현: 한돌아! 어제 우리 아빠가 새로 나온 컴퓨터 게임 CD
를 사 오셨어.

한돌: 와! 좋겠다. 재밌니?

성현: 굉장히 재밌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할래.

한돌: 자꾸 **꼬시지** 마. 오늘은 동생하고 놀아 주기로 했어.

성현: 내가 언제 **꼬였니**?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에
그런 거지.

☞ “꼬시지 마.”의 ‘꼬시지’는 ‘꼬이지’로 써야 맞습니다. 흔히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게 한다는 뜻으로 ‘꼬시다, 꼬심’ 등의 말을 쓰는데, ‘꼬시다’는 ‘꼬이다’를 잘못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꼬시지’는 ‘꼬이지’로, ‘꼬심’은 ‘꼬임’으로, ‘꼬셨니’는 ‘꼬였니’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꼬이다(○) / 꼬시다(×)

꼬임(○) / 꼬심(×)

꼬였다(○) / 꼬셨다(×)

■ -이였다(○) / -이였다(×)

한돌이네 마당 꽃밭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었습니다. 키가

큰 해바라기, 키가 작은 민들레, 닭의 볏 같은 맨드라미, 손톱에 물을 들이는 붉은 봉숭화…….

한글: 엄마! 꽃밭에 꽃들이 피니까 마당이 아주 예뻐요.

엄마: 그래. 아주 예쁘구나. 한글이는 어떤 꽃이 제일 좋으
나?

한글: 예전엔 **장미꽃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민들레가 좋아
요.

☞ ‘장미꽃이었는데’는 ‘장미꽃이었는데’로 써야 맞습니다. ‘떡
다’의 ‘떡-’에 ‘-었-’이 붙어 ‘떡었다’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장
미꽃이다’의 ‘장미꽃이-’에 ‘-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었다’의 ‘이-’가 뒤에 있는 ‘-었-’에 영향을 주어 [-열때]로 소리
나기 때문에 ‘-었-’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이어, 업히어,
굴리어, 잡히었다’를 ‘녹이여, 업히여, 굴리여, 잡히였다’로 잘못
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녹이다, 업히다,
굴리다, 잡히다’에 ‘-어’나 ‘-었-’이 붙은 말이므로, ‘녹이어, 업히
어, 굴리어, 잡히었다’로 써야 맞습니다.

예) 녹이--어 → 녹이어(○) / 녹이여(×),

업히--어 → 업히어(○) / 업히여(×)

굴리--어 → 굴리어(○) / 굴리여(×),

잡히--었다 → 잡히었다(○) / 잡히였다(×)

■ 끼어들기(○) / 끼여들기(×)

한돌이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다. 하루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섰는데, 한 고학년 형이 먼저 온 다른 아이들을 제치고 앞으로 섰습니다. 한돌이는 그 형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한돌: 형! 왜 끼여들기를 하는 거예요?

형: 끼어드는 게 아니고 친구랑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 온 거야.

그 형은 앞에 있는 형이랑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뒤로 갔습니다. 한돌이는 자기가 오해한 사실을 알고 조금 창피했습니다.

☞ ‘끼여들기’는 ‘끼어들기’로 써야 맞습니다. ‘끼어들기’의 발음이 [끼여들기]라서 ‘끼여들기’로 잘못 쓰는 것입니다. ‘끼다’는 “나는 친구들 사이에 끼어 놀았다.”처럼 내가 다른 사물이나 사람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이고, ‘끼이다’는 “가방이 엘리베이터에 끼였다(끼이--+였다).”처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물이나 사람들 사이에 저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끼어들기’는 내가 사물이나 사람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이므로, ‘끼다’를 쓴 ‘끼여들기’를 써야 맞습니다.

■ 낚시터(○) / 낙시터(×)

한돌이네 아버지는 취미가 낚시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돌이를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가십니다. 이번 일요일에도 한돌이는 아빠와 한적한 시골에 있는 낚시터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어 낙시터’라는 뜻말이 있었습니다.

한돌: 아빠! 오늘은 낚시터에 사람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곳이 ‘대어 낙시터’예요?

아빠: 아니, 이곳은 ‘대어 낚시터’란다.

☞ ‘낚시터’를 ‘낙시터’로 적으면 안 됩니다. ‘낚시터’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곳’인데,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고기를 낚으러 간다’고 합니다. ‘고기를 낚으러’의 ‘낚으러’와 ‘낚시터’는 물고기를 잡는 것과 관련된 같은 말이므로 같은 모양을 가져야 합니다. ‘낚으러’의 소리가 [나그러]가 아니라 [나끄러]인 것을 보면, 그 받침이 ‘ㄱ’이 아니라 ‘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낚시터’도 ‘ㄱ(쌍기역)’ 받침으로 적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과 관련된 ‘낚시, 낚시터, 낚시대, 낚다’도 모두 받침을 ‘ㄱ(쌍기역)’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떤 말의 받침이 혼동될 경우는 뒤에 ‘-어, -으러, 으로, 예’와 같은 말을 붙여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면 그 받침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낚다: 낚아[나까] , 낚으러[나끄러]

나뭇가지를 꺾다: 꺾어[껴꺼] , 꺾으러[껴끄러]

꽃: 꽃으로[꼬츠로] , 꽃에[꼬체]

콩밭: 콩밭으로[콩밭트로] , 콩밭에[콩밭테]

■ 나는 슈퍼맨(○) / 날으는 슈퍼맨(×)

한돌이는 피카추라는 만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가게에서 피카추 만화 영화를 빌려다 보고 있습니다.

삼촌: 한돌아! 만화 영화 재미있니?

한돌: 네. 전 ‘피카추’ 만화 영화가 재미있어요. 삼촌은 어릴 때 어떤 만화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삼촌: 삼촌은 ‘짱가, 태권 브이’ 같은 만화를 좋아했고, 영화는 ‘날으는 슈퍼맨’을 좋아했어.

☞ ‘날으는 슈퍼맨’의 ‘날으는’은 ‘나는’으로 써야 맞습니다. 만화에서 ‘하늘을 날으는 슈퍼맨’으로 많이 써서 ‘날으는 슈퍼맨’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슈퍼맨’의 ‘나는’은 ‘날다’에 ‘-는’이 붙으면서 ‘날-’의 ‘ㄹ’이 없어집니다. ‘집에 사는 오리, 콩을 가는 맷돌’의 ‘사는, 가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날다	살다	갈다
날+-는 → 나는	살+-는 → 사는	갈+-는 → 가는
날+-고 → 날고	살+-고 → 살고	갈+-고 → 갈고
날+-며 → 날며	살+-며 → 살며	갈+-며 → 갈며
날+-아 → 날아	살+-아 → 살아	갈+-아 → 갈아

■ 날아오르다(○) / 나라오르다(×)

한돌이는 아빠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파란 나뭇잎과 맑은 공기가 참 좋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숲 속에서 가끔 새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빠: 참 좋구나.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답고.

한돌: 아빠! 저기 숲에서 하늘로 **나라오르**는 새 이름은 뭐예요.

아빠: 글썄, 핑인가.

☞ “새가 하늘로 나라오른다.”의 ‘나라오르다’는 ‘**날아오르다**’로 써야 맞습니다. ‘날아오르다’는 “새가 하늘을 날다, 잠자리가 고추밭을 날고 있다.”의 ‘날다, 날고’와 같은 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나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 너머(○) / 넘어(×)

방학이 되면 한돌이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갑니다. 시골에 가면 종일 개울에 가서 놀거나 산마루에 올라 동네 아이들과 칼싸움을 합니다.

한돌: 애들아! 저 산 **넘어**에는 뭐가 있니?

아이들: 글썄?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넘어가 보지 않아 몰라.

☞ “저 산 넘어에는”의 ‘넘어’는 ‘너머’로 써야 맞습니다. ‘너머’와 ‘넘어’는 소리가 같아 어떤 때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머’와 ‘넘어’는 구별해서 써야 할 말입니다. ‘산 너머’는 산 저쪽의 공간을 뜻하는 말이고, ‘산 넘어’는 산을 넘는 동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산 너머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와 같이 쓸 때는 산 저쪽의 공간을 뜻하므로 ‘너머’를 써야 맞고, “산을 넘어가 보지 않아 몰라.”와 같이 직접 넘는 동작을 뜻할 때는 ‘넘어’를 써야 맞습니다.

■ 늦게(○) / 늦께(×) / 늑께(×)

오늘은 한돌이가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재민이가 만나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았습니다.

한돌: 왜 재민이가 오질 않지?

준호: 글썸, 30분이나 지났는데.

한돌: 이러다가 늦께 될 것 같아.

준호: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어! 저기 온다.

☞ “이러다가 늦께 될 것 같아.”의 ‘늦께’는 ‘늦게’로 써야 맞습니다. ‘늦게’나 ‘늦니’, ‘늦고’와 같은 말은 [느께], [느니], [느꼬]로 그 소리가 때에 따라 변하여 그 받침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말의 받침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어, -어서, -었-’과 같은 말을 붙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늦어, 늦어서,

늦었다가 [느저], [느저서], [느절다]로 소리가 나는 걸 보면 받침이 ‘ㄷ’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늦다, 늦니, 늦고, 늦어, 늦었다’의 받침이 본래 ‘ㄷ’인데, ‘-게, -니, -고’와 같은 말 앞에서 소리가 변한 것입니다.

■ 네가(○) / 너가(×) / 니가(×)

한돌이는 짝궁 사랑이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아이들은 사랑이에게 줄 선물을 들고 사랑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맛있는 케이크와 음료수 등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이에게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선물을 풀어 보면서 사랑이는 좋아했습니다.

재민: 사랑아! 난 예쁘게 글씨 쓰라고 예쁜 연필을 샀어.

사랑: 고마워. 그런데 이 머리핀은 누가 샀니?

한돌: 어, 내가 산 거야.

사랑: 니가 준 선물 마음에 들어, 한돌아!

한돌: 네가 기뻐해 줘서 고마워.

☞ ‘네가’를 ‘니가, 너가’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나 ‘너’는 뒤에 ‘는, 를, 도, 만’과 같은 말이 오면 ‘나, 너’이지만, ‘가’가 오면 특이하게 ‘내가, 네가’가 됩니다. 그런데 ‘네가’의 ‘네’를 쉽게 소리 내기 위해 ‘니가, 너가’의 ‘니, 너’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를 ‘니가’나 ‘너가’라고 쓰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네가’로 써야 맞습니다.

예) 너+가 → 네가(○) / 니가(×) / 너가(×)

너+는 → 너는

너+를 → 너를

너+만 → 너만

나+가 → 내가(○) / 나가(×)

나+는 → 나는

나+를 → 나를

나+만 → 나만

■ 담가(○) / 담귀(×)

엄마는 겨울이 되기 전에 김치를 담가야 한다시면서 배추를 많이 사셨습니다.

한돌: 엄마! 왜 배추를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엄마: 겨울에는 채소가 많지 않으니까, 김치를 미리 담귀 놓고 먹으려고 그래. 이런 걸 ‘김장’이라고 한단다.

한돌: 엄마, 저도 김치 담그는 것을 도울게요.

☞ “김치를 미리 담귀 놓고”의 ‘담귀’는 ‘담가’로 써야 맞습니다. ‘담그다’는 ‘담가, 담갔다’로 모습을 달리하며 쓰이는 말입니다. ‘담그-’에 ‘-아, -아야, -았-’이 붙으면 ‘그’의 ‘-’가 없어집니다.

예) 담그다: 담그-+-아 → 담가, 담그-+-았다 → 담갔다

모으다: 모으--+아 → 모아, 모으--+았다 → 모았다

따르다: 따르--+아 → 따라, 따르--+았다 → 따랐다

아프다: 아프--+아 → 아파, 아프--+았다 → 아팠다

그래서 “김치를 담궈 먹었다.”나 “김치를 담궜다.”의 ‘담궈, 담궜다’는 ‘담가, 담갔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 돌(○) / 똥(×)

돌아오는 토요일은 사촌 동생 돌이라고 합니다. 한돌이는 돌이 뭔지 몰라 엄마에게 여쭙어 보았습니다.

한돌: 엄마, ‘돌’이 뭐예요?

엄마: ‘똥’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고, 세상에서 처음 맞는 생일이란다.

한돌: 그럼 엄마 내 돌에도 잔치를 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한돌이도 ‘똥잔치’를 했지.

‘똥잔치’의 ‘똥’은 ‘돌’로 써야 맞습니다. ‘돌’은 태어나거나 생긴 지가 꼭 1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아기 돌잔치, 개교 50돌, 창립 25돌”과 같이 씁니다.

♠ 표준어 규정 제6항 참고.

■ 돌부리(○) / 돌뿌리(×)

동생 한글이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릎은 어디에
긁혔는지 피가 나고 있습니다.

엄마: 한글아! 왜 무릎을 다쳤니?

한글: 뛰어오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엄마: 아유! 이걸 어떡해. 조심하지 않고.

『』 ‘돌**뿌리**’는 ‘돌**부리**’라고 써야 맞습니다. ‘돌부리’의 ‘부리’는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모양으로 적어야 합니다. ‘돌’의 받침 ‘ㄴ’ 때문에 [뿌리]로 소리 나지만 ‘새의 부리, 병의 부리’에서처럼 ‘부리’로 써야 맞습니다.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은 그 말을 어디에 쓰든 모양을 똑같이 써야 합니다.

■ 돼라(○) / 되라(×)

오늘 한돌이네 반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자기의 장래 희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고, 지훈이는 컴퓨터 박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한돌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돌: 선생님! 저는 ‘전기 박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전기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니?

한돌: 텔레비전이나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사람요.

선생님: 그런 사람은 전기 기술자라고 한단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한돌: 지난번에 텔레비전이 고장 났었는데, 기술자 아저씨가 와서 잠깐 만졌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선생님: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라.

☞ “훌륭한 기술자가 되라.”의 ‘되라’는 ‘돼라’로 써야 맞습니다. ‘무엇이 되어라’라고 할 때는 ‘되-’에 ‘-어라’가 붙어 ‘되어라’가 되고, 이것이 줄면 ‘돼라’가 됩니다. ‘보아라’가 줄어 ‘봐라’로 되거나, ‘주어라’가 줄어 ‘줘라’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 피다: 피--+어라 → 피어라(패라)

되다: 되--+어라 → 되어라(돼라)

뵈다: 뵈--+어라 → 뵈어라(뵈라)

쫌다: 쫌--+어라 → 쫌어라(쫌라)

외다: 외--+어라 → 외어라(왜라)

죄다: 죄--+어라 → 죄어라(죄라)

♠ 한글 맞춤법 규정 제35항 참고.

■ -든가 -든가(○) / -던가 -던가(×)

한돌이는 고기는 좋아하는데 오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보면 고기볶음이나 생선만 먹

습니다.

엄마: 한돌아!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지.

한돌: 김치나 시금치 같은 것은 맛이 없어요.

엄마: 김치를 **먹던가** 시금치를 **먹던가** 야채를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는 거야.

한돌: 알았어요.

☞ “김치를 **먹던가** 시금치를 **먹던가**”의 ‘**먹던가**’는 ‘**먹든가**’로 써야 맞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쓰는 말은 ‘-든가 -든가’입니다. “그날 그가 **왔던가**?”처럼 전에 있던 일을 오늘 이야기할 때는 ‘-던가’를 쓰는 것이 맞지만, 선택을 할 때는 ‘-든가’가 맞습니다.

예) (1) -든가(선택)

먹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렴.

사과든가 배든가 다 좋다.

함께든가 혼자서든가 잘 놀면 됐지.

어디든가 사람이 사는 곳은 마찬가지이다.

(2) -던가(과거의 일을 다시 말함)

밥을 얼마나 많이 먹던지 놀랐다..

얼마나 춥던지 손이 곱아 펴지지 않았다.

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 배탈 날까 걱정이 되었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제56항 참고.

■ 들러서(○) / 들러서(×)

한돌이네 옆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는 한돌이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돌이네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민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수민이가 아직 길을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예, 한돌아! 이리 나와 봐라.

옆집 아주머니: 한돌아, 너 학교 끝나고 수민이네 반에 들러서 우리 수민이랑 같이 올래? 아직 이 동네 길을 잘 몰라서.

한돌: 예, 그럴게요.

☞ “어디에 들러서 오너라.”의 ‘들러서’는 ‘들러서’를 잘못 쓴 것입니다. ‘들르다’는 ‘들러, 들러서, 들렀다’로 써야 맞습니다. “소리가 잘 들러서”의 ‘들러서’와 혼동하여 ‘친구 집에 들러서’로 잘못 쓰는 것입니다. 지나는 길에 잠깐 머물렀다 오는 것은 ‘들러서’로 써야 맞습니다.

예) 들리다(소리): 들리-+-어서 → 들리어서(들러서)

들르다(친구 집): 들르-+-어서 → 들러서

슬프다: 슬프-+-어서 → 슬퍼서

■ 떡볶이(○) / 떡볶기(×) / 떡볶끼(×)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웬일인지 재민이가 자기가 맛있는 걸 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용돈을 탔다나요.

한돌: 그래, 뭘 사 줄래?

재민: 먹고 싶은 걸 말해 봐.

수민: 떡볶기 어때?

한돌, 재민: 좋아.

☞ ‘떡볶이’를 ‘떡볶기’로 쓰거나 ‘떡볶끼’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떡볶이’를 ‘떡볶기, 떡볶끼’로 쓰는 것은 그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입니다. ‘떡볶이’는 ‘떡에 여러 가지 양념을 하여 볶은 음식’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볶다’와 같은 모양으로 ‘떡볶이’라고 써야 합니다.

■ -르걸(○) / -르꼴(×)

엄마가 시장에 가시면서 한돌이와 한글이에게 어질러 놓은 자기 방을 정리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한돌이는 재미있는 만화를 보느라 하지 않았는데, 동생 한글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동화책도 바로 꽂아 놓고 인형도 바로 올려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방 정리는 했니?

한글: 예, 엄마. 그런데 오빠는 안 했어요.

엄마: 그래. 그럼 정리를 잘한 우리 한글이만 용돈을 주어야
 겠구나.

한돌: 저도 지금 할게요. 저도 용돈 주세요.

엄마: 안 돼. 이미 때는 늦었어.

한돌: 나도 빨리 할걸.

☞ “나도 빨리 할걸.”의 ‘할걸’을 소리 나는 대로 ‘할겘’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때의 ‘-르걸’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를 과거로 표현하면 “내가 한걸.”처럼 됩니다. ‘할걸’과 ‘한걸’은 나타내는 시간만 다르고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할걸’에서는 ‘-르’ 받침 때문에 뒤의 ‘-걸’이 [겘]로 소리 납니다. 소리는 그렇게 나더라도 ‘한걸’과 ‘할걸’의 ‘걸’은 같은 말이므로 같게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할지[할찌]’와 ‘할게[할께]’ 등이 있습니다. 물음을 나타내는 ‘할까, 할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발음은 [기]로 나더라도 ‘ㄱ’로 적어야 합니다.

예) 밥 먹을겘(○) / 밥 먹을겘(×)

사랑할 거야(○) / 사랑할 꺼야(×)

너 줄게(○) / 너 줄께(×)

누가 할지(○) / 누가 할찌(×)

누가 할까(○) / 누가 할가(×)

어찌할꼬(○) / 어찌할고(×)

♠ 한글 맞춤법 규정 제53항 참고.

■ 만듦(○) / 만듬(×)

한돌이는 아빠가 사 주신 조립식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돌이는 몇 시간 동안 로봇을 열심히 조립하여 드디어 완성하였습니다.

엄마: 한돌아! 이제 그만 하고, 일기 써야지.

한돌: 예, 쓸게요.

엄마: 얼른 쓰도록 해.

한돌이는 일기장을 펴서 제목에 “드디어 로봇을 만듦.”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로봇을 만드는 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썼습니다.

☞ “로봇을 만듦.”의 ‘만듦’은 ‘만듦’으로 써야 맞습니다. ‘가다’가 ‘가-’에 ‘-ㅁ’이 붙으면 ‘감(가+-ㅁ)’이 되는 것처럼 ‘만들다’도 ‘만들-’에 ‘-ㅁ’이 붙으면 ‘만듦’이 됩니다. ‘만듦이, 만듦으로’가 [만들미], [만들므로]로 소리 나는 것을 보면 받침이 ‘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살다: 살+-ㅁ → 삶 : 집에서 혼자 삶.

알다: 알+-ㅁ → 앎 : 그 지역을 잘 앎.

얼다: 얼+-ㅁ → 엇 : 얼음이 엇.

갈다: 갈+-ㅁ → 값 : 멧돌로 콩을 값.

♠ 한글 맞춤법 규정 제19항, 제57항 참고.

■ (정답을) 맞히다(○) / (정답을) 맞추다(×)

일요일 저녁 한돌이네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퀴즈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한 사람이 답을 아주 잘 맞혔습니다.

한돌: 아빠! 저 형은 어떻게 저렇게 정답을 잘 **맞춰요?**

아빠: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 알고 있는 게 많은 모양이야.

엄마: 우리 한돌이도 저 형처럼 답을 잘 **맞히고** 싶니?

한돌: 예.

☞ “정답을 맞춰요?”의 ‘맞춰요(맞추어요)’는 ‘**맞혀요(맞히어요)**’로 써야 맞습니다. ‘맞춰요’는 ‘맞추어요’를 줄여 쓴 것이고, ‘맞혀요’는 ‘맞히어요’를 줄여 쓴 것입니다. ‘맞추다’와 ‘맞히다’는 뜻이 다른 말인데, 물음에 옳은 답을 말하는 것은 ‘맞히다’이고, 답을 답안지와 비교하여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맞추다’입니다. ‘정답을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옳은 답을 말하는 것이므로 ‘맞히다’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내 시험지를 답안지와 맞춰 보다”라고 할 때는 두 개를 비교해 살펴보는 것이므로 ‘맞추다’를 써야 합니다. ‘알아맞히다’의 경우는 답을 알아서 맞는 답을 말하는 것이므로 ‘맞히다’를 쓴 ‘알아맞히다’가 맞습니다.

예) (1) 맞추다

정답과 시험지를 맞추다.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면 서로 답

을 맞추어 본다.

(2) 맞히다

문제를 맞히다. 수수께끼를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3) 알아맞히다

퀴즈를 알아맞히다.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를 알아맞혀 봐.

■ 머릿결(○) / 머리결(×)

어느 날 재민이가 앞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왔습니다. 그
결 보고 짱궁인 사랑이가 멋있다고 합니다. 한돌이 눈에는 그렇
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가 멋있다고 하니
자기도 염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돌: 엄마! 제 앞머리 노랗게 물들여 주세요.

엄마: 갑자기 왜 머리를 물들이려고 하니?

한돌: 요즘에는 머리에 갈색이나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게
유행이래요.

엄마: 머리에 염색을 하면 머리결도 나빠지고, 몸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엄마는 우리 한돌이의 머리
색이 훨씬 멋있어 보인단다.

☞ “머리결도 나빠지고”의 ‘머리결’은 ‘머릿결’로 써야 맞습니
다. ‘머릿결’이 [머리결]로 소리 나는 것은 ‘머리’와 ‘결’ 사이에
시옷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뭇가지, 바닷가, 햇볕’도 ‘나무’와 ‘가
지’, ‘바다’와 ‘가’, ‘해’와 ‘볕’이 붙으면서 그 사이에 시옷이 들어

간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나무가지], [바다가], [해별] 이 아니라, [나무까지], [바다까], [해뺨]으로 발음하는 것도 두 말 사이에 시옷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머릿결’ 은 ‘나뭇가지, 바닷가, 햇볕’처럼 받침으로 시옷을 적어야 합니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제30항 참고.

■ 멈췄습니다(○) / 멈췄습니다(×)

한돌이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 골목에서 자동차 한 대가 나왔습니다. 달려가던 한돌이는 하마터면 자동차와 부딪칠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돌이는 엄마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한돌: 엄마! 제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옆 골목에서 차가 나왔어요.

엄마: 어머, 그래서 어떻게 했니?

한돌: 다행히 차가 금방 **멈췄어요**. 그래서 부딪치지는 않았어요.

엄마: 앞으로 자전거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 가서 타고, 골목에서는 타지 마라.

☞ “다행히 차가 금방 멈췄어요.”의 ‘멈췄어요’는 ‘**멈췄어요**’로 써야 맞습니다. ‘멈추다’에 ‘-었다’가 붙으면 ‘멈추었다’가 되고, 이 말이 줄어들면 ‘멈췄다’가 됩니다. [멈췄습니다]로 잘못 발음

하여 ‘멈쳤습니다’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 예) 겨누다: 겨누--었다 → 겨누었다 (준말: 겨눴다)
 멈추다: 멈추--었다 → 멈추었다 (준말: 멈췄다)
 두다: 두--었다 → 두었다 (준말: 뒀다)
 주다: 주--었다 → 주었다 (준말: 줬다)

■ 며칠(○) / 몇 일(×)

한돌이네 반 친구 찬규가 며칠째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찬규네 집을 아니?

한돌: 제가 아는데요.

선생님: 몇 일 동안 찬규가 나오지 않아서 찾아가 보려고 한단다. 한돌이가 선생님과 같이 가 줄래?

한돌: 예.

☞ “몇 일 동안 찬규가 나오지 않아서”의 ‘몇 일’은 ‘며칠’로 써야 맞습니다. ‘몇 일’은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이지났니?”라고 할 때는 ‘며칠’을 쓰지만, ‘몇 월 며칠’이라고 할 때는 ‘며칠’ 대신 ‘몇 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월’처럼 ‘몇 일’의 ‘몇’을 밝혀 적으려면, ‘몇 월’을 [며월] (←면월)로 발음하는 것처럼 ‘몇 일’은 [며딜] (←면일)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러나 ‘며칠’만 쓸 때나 ‘몇 월 며칠’로 쓸 때나 [며칠]

로 발음하기 때문에 ‘며칠’로 써야 맞습니다. 즉 ‘며칠’은 ‘몇 일’로 ‘몇’과 ‘일’의 형태를 밝혀 쓰지 않고, 항상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씁니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제27항 참고.

■ 바람(○) / 바램(×)

오늘은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한돌이는 시험을 잘 못 보았는지 울상이었습니다.

재민: 한돌아! 시험 잘 못 보았어?

한돌: 응, 이번에 100점 맞는 것이 내 바램이었는데.

재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한돌: 이번에 100점 맞으면 아빠가 키펀드 사 주신다고 하셨는데.

☞ “내 바램이었는데.”라고 했을 때 ‘바램이었는데’는 ‘바람이 다’를 쓴 ‘바람이었는데’로 써야 맞습니다. 자주 ‘나의 바램이야, 나는 바랬다, 네가 빨리 오길 바래.’로 씁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바라다’라는 동사가 변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라다’의 ‘바라-’에 ‘-ㅁ’이나 ‘-았-’, ‘-아’가 붙은 ‘바람(바라+-ㅁ), 바랐다(바라+-았+-다), 바라(바라+-아)’로 써야 맞습니다. ‘키가 자라다’의 ‘자라다’를 ‘자램, 자랬다, 자래’로 쓰지 않고, ‘자람, 자랐다, 자라’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라다’를 ‘자람, 자랐다, 자라’로 쓰는 것을 보면 ‘바라다’를 ‘바램, 바랬다, 바래’로 쓰는 것은 잘

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바라다

바라+-ㅁ → 바람

바라+-아 → 바라

바라+-았다 → 바랐다

자라다

자라+-ㅁ → 자람

자라+-아 → 자라

자라+-았다 → 자랐다

♠ 표준어 규정 제11항 참고.

■ 반드시 (앉다)(×) / 반듯이 (앉다)(○)

한돌이는 위인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참 읽었더니 조금 지루해졌습니다. 남은 부분을 마저 읽고 싶기도 하고 지루해서 그만 읽고 싶기도 해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책상에 엎드린 채 옆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과일을 가지고 오시던 어머니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엄마: 한돌아! 책은 책상에 **반드시** 앉아서 보아야 한다.

한돌: 왜요, 엎드려 보면 편한데.

엄마: 자세가 안 좋으면 시력도 나빠지고, 허리뼈도 휘어진단다.

한돌: 그럼,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반듯하게** 앉아야겠군요.

☞ ‘반드시’와 ‘반듯이’는 둘 다 맞는 말이나 그 쓰임이 다릅니다. “내일 반드시 오너라.”처럼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일 때는 ‘반드시’가 맞고, “허리를 반듯이 펴고 앉아라.”처럼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일 때는 '반듯이'가 맞습니다. '반듯하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반듯이'로 써야 합니다.

예) (1) 반드시

내일 반드시(×반듯하게) 오너라.

숙제는 반드시(×반듯하게) 7시까지 해 놓아라.

(2) 반듯이

책상에 반듯이(반듯하게) 앉아라.

책꽂이에 책을 반듯이(반듯하게) 꽂아라.

♠ 한글 맞춤법 제57항 참고.

■ 방귀 꺼다(○) / 방구 꾸다(×)

저녁을 먹고 한돌이네 가족은 과일을 먹으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돌: 한글이, 네가 방구 꺼지?

한글: 아니야, 난 안 꺼었어.

아빠: 방귀 꺼 사람은 나야.

한돌: 아! 아빠도 참.

아빠: 오늘 낮에 보리밥을 먹어서 그런가?

☞ “방구를 꺼지”는 “방귀를 꺼었지”로 써야 맞습니다. ‘방구’는 ‘방귀’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방귀를 몸 밖으로 내보

내는 것은 ‘꾸다’가 아니라 ‘뀌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방구 대장’은 ‘방귀 대장’으로 써야 하고, ‘방구 꾸다’는 ‘방귀 꾸다’로 써야 합니다.

방귀(○) / 방구(×)

뀌다(○) / 꾸다(×)

■ 배고픔(○) / 배고품(×)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는 옛날이야기를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한돌이와 한글이는 할머니께 옛날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할머니: 옛날에는 산속에 살던 짐승들이 눈이라도 내리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먹이를 찾으려고 마을로 내려와 소나 닭 등을 잡아먹었지. 한번은 새벽에 아침밥을 지으려고 나왔더니 커다란 짐승이 마당을 가로질러 담을 훌쩍 넘어 도망가는 거야. 날이 밝은 다음에 보았더니 닭장 안의 닭이 몇 마리가 없어졌지 뭐야. 아마도 호랑이가 왔었나 봐.

한돌: 으으!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무서웠지. 그런데 그 후로도 종종 마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단다.

☞ ‘배고픔’은 ‘배고픔’으로 써야 맞습니다. ‘배고프다’의 ‘배고

프-'에 '-ㅁ'이 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쁘다, 슬프다, 가지다, 보다'의 '기쁘-, 슬프-, 가지-, 보-'처럼 받침이 없는 말에는 '-ㅁ'을 붙여 '기쁨, 슬픔, 가짐, 봄'으로 씁니다. 받침이 있는 '먹다, 죽다, 안다'는 '-음'을 붙여 '먹음, 죽음, 안음'으로 씁니다. 그런데 받침이 'ㅂ'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받침 'ㅂ'이 'ㄷ'로 변하고, 여기에 '-ㅁ'이 붙습니다. '즐겁다, 놀랍다, 무겁다'는 '즐거움, 놀라움, 무거움'으로 씁니다.

예) (1) 받침 없는 말

기쁘다 → 기쁨, 슬프다 → 슬픔,
가지다 → 가짐, 예쁘다 → 예쁨

(2) 받침 있는 말('ㅂ'인 말 제외)

먹다 → 먹음, 안다 → 안음,
붙다 → 붙음, 높다 → 높음

(3) 받침이 'ㅂ'인 말

즐겁다 → 즐거움, 놀랍다 → 놀라움,
무겁다 → 무거움

■ 부동켜안고(○) / 부동켜않고(×)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에 사시는 고모가 오셨습니다. 고모는 할머니를 보자 부동켜안고 기뻐하셨습니다. 고모와 할머니는 서로 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 '부동켜안고, 감싸안고'의 '안고'는 팔을 벌려 감싸는 '안다'

입니다. ‘떡지 앵고’의 ‘앵고’와 혼동하여 ‘부등켜앵고, 감싸앵고’로 잘못 쓰기도 하는데, ‘안아 주다’처럼 받침을 ‘ㄴ’으로 써야 맞습니다. 받침에 ‘ㅎ’이 있으면 ‘놓고[노코], 놓다[노타], 놓지[노치]’처럼 ‘ㅎ’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ㅈ]는 [ㅋ, ㅌ, ㅊ]로 소리가 변합니다. 그런데 ‘부등켜안고’의 ‘안고’는 [안꼬]로 소리 나는 것으로 보아, ‘떡지 앵고’의 ‘앵고[안코]’와 같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붙이다(○) / 부치다(×)

한돌이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방학을 하면 아빠, 엄마, 한글이와 함께 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덕은 서울보다 더 추운데 걱정입니다.

엄마: 한돌아, 누구한테 편지 썼니?

한돌: 할머니, 할아버지께 썼어요. 이제 편지는 다 썼고 우표만 부치면 돼요.

엄마: 여기 우표 있다. 우표 붙여서 얼른 부치고 오너라.

☞ ‘우표만 부치면’의 ‘부치면’은 ‘붙이면’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종이가 벽에 잘 붙다, 껌이 바닥에 붙다’의 ‘붙다’에 ‘-이-’가 더 들어간 말이므로 ‘붙이다’로 써야 맞습니다. 즉 풀이나 테이프 등을 이용해 두 물체를 고정시키는 것은 ‘붙이다’입니다. 이와 달리 ‘편지를 친구에게 부치다’처럼

‘붙다’와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있더라도 원래 뜻에서 떨어진 경우는 ‘부치다’를 씁니다. ‘우표를 편지에 붙인다’고 할 때는 ‘붙이다’를 쓰는 것이 맞지만, 할아버지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뜻일 때는 ‘부치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붙이다’와 ‘부치다’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풀로 붙이는 것은 ‘붙이다’, 편지를 보내는 것은 ‘부치다’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부치다: 힘이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논밭을 부치다, 빈대떡을 부치다

♠ 한글 맞춤법 제57항 참고.

■ 빨개져서(○) / 빨게져서(×)

한돌이는 문방구에서 연필을 샀는데, 아주 예뻐습니다. 그래서 한 개 더 사서 짝꿍 사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한돌: 사랑아, 이 연필 가질래?

사랑: 연필을 왜 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선물은 받기 싫은데.

한돌이는 사랑이가 연필을 받지 않고 거절하자, 얼굴이 빨게졌습니다.

☞ “한돌이는 얼굴이 빨게졌습니다.”의 ‘빨게졌습니다’는 ‘빨개졌습니다’로 써야 맞습니다. ‘빨개졌습니다’는 ‘빨강다’가 모양을 바꾼 말입니다. 색깔을 나타내는 말 중에 ‘빨강다, 까맣다,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는 ‘빨개, 까매, 파래, 노래, 하얘’로 모양을 바꾸어 쓰고, ‘빨경다, 꺼멍다, 퍼렁다, 누렁다, 허영다’는 ‘빨게, 꺼메, 퍼레, 누레, 허예’로 모양을 바꾸어 씁니다.

까맣다: 까맣--+아 → 까매	꺼멍다: 꺼멍--+어 → 꺼메
파랗다: 파랗--+아 → 파래	퍼렁다: 퍼렁--+어 → 퍼레
노랗다: 노랑--+아 → 노래	누렁다: 누렁--+어 → 누레
하얗다: 하얗--+아 → 하얘	허영다: 허영--+어 → 허예

♠ 한글 맞춤법 제18항 참고.

■ 손가락 / 젓가락

한돌이네 식구들이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를 바글바글 끓이고, 한돌이가 좋아하는 멸치도 볶으셨습니다.

한돌: 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 있네.

아빠: 한돌이 골고루 먹어라.

한돌: 예.

엄마: 한돌이 젓가락 제대로 잡고 먹어라.

한돌: 손가락은 괜찮은데 젓가락은 쓰기가 어려워요.

☞ ‘젓가락’은 받침에 ‘ㅅ’을 쓰고, ‘숟가락’은 받침에 ‘ㄷ’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두 말 모두 ‘가락’이 들어가는 말인데, 왜 하나는 ‘ㅅ’을 쓰고 다른 하나는 ‘ㄷ’을 쓰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젓가락’은 젓가락을 의미하는 ‘저’와 ‘가락’이 붙은 말로 이때는 두 말을 연결하는 ‘ㅅ’을 넣은 것입니다. 이때의 ‘ㅅ’은 ‘찰잔, 등 꽃길’에 쓰인 ‘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숟가락’은 ‘밥 한 술’의 ‘술’이라는 말과 ‘가락’이 붙은 것으로 이때 ‘술’은 ‘가락’을 만나면서 받침 ‘ㄹ’이 ‘ㄷ’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받침 자리에 ‘ㄷ’이 있기 때문에 ‘젓가락’처럼 ‘ㅅ’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루어진 말이지만 ‘젓가락’은 받침으로 ‘ㅅ’을 쓰고, ‘숟가락’은 ‘ㄷ’을 쓰는 것입니다. ‘숟가락’처럼 ‘ㄹ’ 받침이 ‘ㄷ’으로 변한 예로 ‘이튿날’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이틀’에 ‘날’이 붙으면서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어 ‘이튿날’이 된 것입니다.

■ 쌍둥이(○) / 쌍둥이(×)

한돌이네 반에는 지원이와 수원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합니다.

한돌: 재민아, 우리 반 지원이와 수원은 얼굴이 너무 똑같아.

재민: 그 애들은 쌍둥이래.

한돌: 쌍둥이? 그렇구나 쌍둥이라서 똑같이 생겼구나.

☞ ‘쌍둥이’를 ‘쌍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쌍둥이’로 써야 맞습니다. ‘검둥이 / 검둥이, 귀둥이/귀둥이, 막둥이 / 막둥이, 흰둥이 / 흰둥이’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둥이’와 ‘-둥이’를 혼동하여 쓰는데, ‘-둥이’와 ‘-둥이’ 중 ‘-둥이’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검둥이, 귀둥이, 막둥이, 쌍둥이, 흰둥이’로 써야 맞습니다.

♠ 표준어 규정 제8항 참고.

■ 아기(○) / 애기(×)

엄마는 사진첩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한참 정리를 하시더니 한돌이와 한글이의 어릴 때 사진들을 보며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엄마, 왜 웃으세요? 사진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요?

엄마: 그래, 우리 한돌이 한글이가 애기였을 때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난다.

한돌: 저도 봐요. 그런데 엄마! 창피하게 왜 웃 벗은 모습을 찍었어요.

한글: 나도 봐요. 봐요.

한돌: 안 돼. 엄마 이 사진은 아무도 보여 주면 안 돼요.

☞ ‘애기’는 ‘아기’로 써야 맞습니다. ‘아기’를 자주 ‘애기’로 쓰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텔레비전 사극에서 ‘아기씨’를 ‘애기씨’로 쓰는 것도 ‘아기씨’로 써야 맞습니다.

아기(○) / 애기(×)

아기씨(○) / 애기씨(×)

♠ 표준어 규정 제9항 참고.

■ 아지랑이(○) / 아지랭이(×)

한돌이와 한글이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한돌이는 남자 아이들과 함께 말 타기도 하고 나무 막대기로 칼싸움도 하였습니다. 한쪽에서 남자 아이들이 칼싸움을 할 때, 여자 아이들과 한글이는 땅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한글: 오빠, 오빠, 저기, 저기 좀 봐. 땅에서 김이 나와.

한돌: 아냐, 저건 아지랭이라고 하는 거야.

한글: 아지랭이? 아지랭이는 왜 생겨?

한돌: 글썸, 그건 아빠한테 여쭙 보자.

☞ ‘아지랭이’는 ‘아지랑이’로 써야 맞습니다. ‘아지랑이’를 ‘아지랭이’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지랑이’만 맞는 말이고, ‘아지랭이’는 틀린 말입니다.

♠ 표준어 규정 제9항 참고.

■ 안 먹어(○) / 았 먹어(×)

한돌이는 엄마께서 주신 용돈으로 과자를 샀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과자를 샀는데, 한글이도 먹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한글: 오빠! 나 좀 줘.

한돌: 한 개만 먹어.

한글: 아유, 겨우 한 개만 먹으라고. 치사해서 **았** 먹어.

☞ “았 먹어.”의 ‘았’은 ‘안’으로 써야 맞습니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안 먹다, 안 입다, 안 가다’처럼 쓰입니다. ‘았-’은 ‘보지 았고, 가지 았았다, 먹지 았겠다’처럼 ‘았-’ 혼자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안 먹는다’는 ‘안’을 쓰고, ‘먹지 았는다’는 ‘았-’을 써야 맞습니다.

■ 예쁘다(○) / 이쁘다(×)

엄마가 저녁 준비를 위해 시금치를 다듬고 계십니다.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한글이는 엄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글: 엄마, 시금치 다듬는 거 저도 할까요.

엄마: 아냐, 엄마 혼자 해도 돼.

한글: 엄마를 도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아이고, **이쁜** 우리 딸.

☞ “이쁜 우리 딸.”의 ‘이쁜’은 ‘**예쁜**’으로 써야 맞습니다. ‘예쁘다’보다 ‘이쁘다’로 소리 내는 것이 쉬워서인지 ‘예쁜 딸, 예쁜 이, 얼굴이 참 예쁘다’를 ‘이쁜 딸, 이쁜 이, 얼굴이 참 이쁘다’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쁘다’를 ‘이쁘다’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쁜 딸, 예쁜 이, 얼굴이 참 예쁘다

■ 어서 오십시오(○) / 어서 오십시오(×)

아빠가 갈비를 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돌이네 가족은 모처럼 외식을 하러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 음식점 문에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적혀 있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한돌: 아빠! ‘어서 **오십시오**’가 맞나요, ‘어서 **오시오**’가 맞나요?

아빠: 글썬?

엄마: ‘어서 오시오’가 맞는 표현이야.

☞ “어서 오시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서 와요.”처럼 ‘어서 와’만으로도 말이 되는 경우는 ‘요’를 쓰는 것이 맞지만, “어서 오시오.”처럼 “어서 오십시-”만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오’를 써야 합니다.

예) 사과를 먹어(○)

사과를 먹어요(○) / 사과를 먹어오(×)

손을 잡아(○)

손을 잡아요(○) / 손을 잡아오(×)

어서 가십시-(×)

어서 가십시오(○) / 어서 가십시요(×)

많이 드십시-(×)

많이 드십시오(○) / 많이 드십시요(×)

■ 오뚝이(○) / 오뚜기(×)

돌이 막 지난 사촌 동생 영민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직 걷는 게 서툴러 뒹뒹 걷다가 앞으로 넘어지곤 합니다.

한돌: 엄마, 영민이 참 귀여워요.

엄마: 그래, 걷는 것도 귀엽고, 웃는 것도 참 귀엽지?

한돌: 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게 오뚜기 같아요.

☞ ‘오뚜기’는 ‘오뚝이’로 써야 맞습니다. 누워 있는 것이 솟거나 발짝 일어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은 ‘오뚝, 오뚝하다’입니다. “코가 오뚝하다, 무슨 생각이 나는지 오뚝 일어서서 나갔다.”처럼 씁니다. 그러므로 누웠다가 발짝 일어나는 인형 ‘오뚝이’도

‘오뚝, 오뚝하다’와 같은 모양인 ‘오뚝이’로 써야 합니다.

■ 왜지(○) / 웬지(×)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날씨도 꽤 쌀쌀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한돌이는 조금 배가 고팠습니다.

한돌: 엄마! 오늘은 **웬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엄마: 그래, 날씨도 쌀쌀하니 떡볶이에 어묵 국을 끓여 줄
까?

한글: 와, 맛있겠다. 오빠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겠네.

☞ “오늘은 **웬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의 ‘**웬지**’는 ‘**웬지**’로 써야 맞습니다. 이 말은 ‘왜 그런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왜’라는 모습이 살아 있는 ‘**웬지**’로 씁니다. “**웬** 걱정이야, **웬일**, **웬** 사람”처럼 ‘어찌된, 어떠한’이라는 의미일 때는 ‘**웬**’을 쓰지만, ‘왜 그런지’의 ‘**웬지**’는 ‘**웬**’을 써야 맞습니다.

웬-: **웬지** 좋다

웬: **웬일**이야,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웬** 걱정을 그렇게 하니.

■ 있음(○) / 있슴(×)

~ 있습니다(○) / 있습니다(×)

엄마와 한돌이는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 슈퍼마켓 문에는 ‘담배 있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돌: 엄마! 슈퍼에서 담배도 파나 봐요.

엄마: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담배 있슴’은 틀린 말인데.

한돌: 그럼 뭐라고 써야 맞아요.

엄마: ‘담배 있음’이라고 해야 돼.

☞ ‘있음’과 ‘있습니다’로 써야 맞습니다. “담배 있음.”은 ‘있다’의 ‘있-’에 ‘-음’을 붙인 것이고, “담배가 있습니다.”에서는 ‘있-’에 ‘-습니다’를 붙인 것입니다. ‘있음’에서 ‘있-’의 받침인 ‘ㅈ’의 소리가 뒤에 연결되면서 [이쑈]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있슴’으로 적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다’를 ‘먹음’, ‘먹습니다’로 쓰는 것처럼 ‘있다’도 ‘있음, 있습니다’로 써야 맞습니다.

(예)	종결형(-습니다)	명사형(-음)
먹다	먹습니다	먹음: 아이는 밥을 잘 먹음.
있다	있습니다	있음: 지갑에 돈이 있음.
했다	했습니다	했음: 오늘 숙제는 다 했음.

♠ 표준어 규정 제17항 참고.

■ -장이(○) / -쟁이(×)

한글이는 아직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한돌이가 동화책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한글: 오빠, 나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읽어 줘.

한돌: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재밌어?

한글: 응, 재미있어.

☞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난장이’는 ‘난쟁이’로 써야 맞습니다. ‘옹기장이, 유기장이, 간판장이’처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일 때는 ‘-장이’를 쓰지만,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일 때는 ‘욕심쟁이, 고집쟁이, 멋쟁이, 심술쟁이, 개구쟁이’와 같이 ‘-쟁이’를 써야 합니다.

♠ 표준어 규정 제9항 참고.

■ 먼지떨이(○) / 먼지털이(×)

~ 재떨이(○) / 재털이(×)

일요일이면 한돌이네 가족은 대청소를 합니다. 아빠는 청소기를 미시고, 엄마는 창틀과 방문 틈의 먼지를 닦으십니다.

엄마: 한돌아! 창고에 가서 먼지털이 좀 가지고 와.

한돌: 먼지떨이요?

아빠: 한돌아! 안방에서 재털이 좀 가지고 와.

한돌: 먼저 먼지떨이 가지고 온 다음에 **재떨이** 가져다 드릴
게요.

☞ ‘먼지떨이, 재떨이’는 ‘**먼지떨이, 재떨이**’로 써야 맞습니다. 붙어 있는 것을 손으로 쳐서 떼어내는 것은 ‘떨다’입니다. ‘재를 떨어 내는 곳’인 ‘재떨이’와 ‘먼지를 떨어 내는 것’인 ‘먼지떨이’는 모두 ‘떨다’와 같은 모양으로 적습니다. ‘먼지떨이, 재떨이’로 쓰면 안 됩니다.

■ -째(○) / -채(×)

엄마가 간식으로 만두를 쥘 주셨습니다. 한돌이와 한글이는 서로 많이 먹으려고 말도 하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한돌이는 빨리 먹으려고 잘 씹지도 않습니다.

한글: 엄마! 오빠 잘 씹지도 않고 **통채**로 삼켜요.

엄마: 한돌아, 꼭꼭 씹어 먹어야지.

한돌: 엄마, **통째**로 안 먹어요. 꼭꼭 씹어 먹는 중이에요.

☞ “통채로 삼켜요.”의 ‘통채로’는 ‘**통째로**’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대로’ 또는 ‘전부’를 뜻하는 말은 ‘-채’가 아니라 ‘-째’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째**, 껌**째**, 통**째**로’를 ‘그릇**채**, 껌**채**, 통**채**로’로 쓰면 안 됩니다.

■ 찌개(○) / 찌게(×)

시골 할머니 댁에서 된장이며 풋고추며 고구마를 보내오셨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께서 보내오신 된장과 풋고추를 넣고 저녁에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한돌: 엄마, 된장찌개가 참 맛있어요.

엄마: 그래, 할머니께서 우리 한돌이 된장찌개 잘 먹는다고 된장을 한 항아리나 보내셨지 뭐니.

한돌: 제가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화드릴까요?

엄마: 그래라. 얼마 있다 찾아뵙겠다고 전하고.

☞ ‘김치찌개, 된장찌개, 달걀찌개, 부대찌개’의 ‘찌개’를 ‘찌게’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와 ‘게’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여 생긴 잘못인데, ‘찌게’는 ‘찌개’로 써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달걀찌개, 부대찌개’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 창피(○) / 쳇피(×)

유치원에서 돌아온 한글이가 영영 울고 있습니다. 엄마와 한돌이는 한글이에게 왜 우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한글아! 왜 우니?

한글: 몰라, 몰라. 나 쳇피해서 이제 유치원에 못 가.

한돌: 왜 그래. 왜 유치원에 못 가?

한글: ‘쉬’가 마려워 화장실에 갔는데 다른 애가 나오지 않아 그만 바지에 썼어.

엄마: 그래서 다른 바지를 입고 왔구나. 한글아! 괜찮아.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야.

☞ “창피해서 이제 유치원에 못 가.”의 ‘창피해서’는 ‘**창피해서**’로 써야 맞습니다. ‘창피하다’를 자주 ‘창피하다’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하다’는 ‘창피하다’를 잘못 쓰는 것입니다. ‘아지랑이, 손잡이’를 ‘아지랭이, 손잡이’로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 해님(○) / 햇님(×)

한글이가 동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돌이 생각에 동생 한글이는 어리지만 노래를 참 잘합니다.

한글: **햇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 해 놓고.

한돌: 한글아! ‘**햇님**’이 아니고 ‘**해님**’이라고 해야 돼.

☞ ‘해님’을 ‘햇님’으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해님’은 ‘형님, 토끼님, 다람쥐님’처럼 ‘해’에 ‘-님’이 붙는 말입니다. 이때 ‘님’이 붙은 말 앞에는 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님’이 붙는 ‘해님, 토끼님, 다람쥐님’ 등은 시옷을 넣지 않고 써야 맞습니다. 읽을 때도 [해님], [토끼님], [다람쥐님]이 아니고, [해님], [토끼님], [다람쥐님]으로 읽어야 합니다. ‘해님’을 ‘햇살, 햇볕’과 같은

것으로 보아 ‘햇님’으로 쓰는데 ‘해님’과 ‘햇살, 햇볕’은 다르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 아우님(○) / 아웃님(×), 해님(○) / 햇님(×),
자라님(○) / 자랏님(×), 다람쥐님(○) / 다람젓님(×),
토끼님(○) / 토깃님(×), 거북이님(○) / 거북잇님(×)

2. 알맞은 띄어쓰기

앞 장에서는 바르게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장에서는 바른 띄어쓰기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 거 봐(○) / 거봐(×)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혼나잖아.”의 ‘거 봐’는 띄어 써야 합니다. ‘거 봐’의 ‘거’는 ‘그거’를 줄여 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 봐’에서 ‘그거’를 뒷말과 띄어 쓰는 것처럼 ‘거 봐’도 띄어 써야 합니다.

■ 넘어질 거야(○) / 넘어질거야(×)

“조심하지 않으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거야.”의 ‘거야’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거야’의 ‘거’는 ‘먹는 것, 입는 것’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을 ‘먹는 거, 입는 거’처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의 ‘것’은 ‘먹는 사과, 입는 옷’의 ‘사과, 옷’과 같은 자리에 있는 말로, ‘사과, 옷’

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먹는 사과’처럼 ‘먹는 것’도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것’과 같은 ‘거’도 ‘먹는 거, 입는 거’나 ‘사랑을 할 거야’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 먹는 데 소금을 쳐라(○)
/ 먹는데 소금을 쳐라(×)

“우리가 밥을 **먹는데** 누가 찾아왔다.”의 ‘먹는데’와, “우리가 **먹는 데** 소금을 쳐라.”의 ‘먹는 데’는 다른 말입니다. 앞 문장의 ‘데’는 ‘-는’과 붙여 써야 하고, 뒤 문장의 ‘데’는 ‘-는’과 띄어 써야 합니다. ‘데’ 뒤에 ‘-에’를 붙여서 말이 되면 앞말과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붙여 씁니다.

예) 나는 갈 **건데**, 너는 안 갈래. / 날이 **추운데** 어딜 가니?
집에 오는 **데(에)** 3시간 걸렸대. / 공부를 잘하는 **데(에)**
다가 마음씨도 착해.

- 만들어야겠어(○) / 만들어야 겠어(×)

“나는 친구를 **만들어야겠어**.”의 ‘만들어야겠어’는 붙여 써야 합니다. 원래는 ‘만들어야 하겠어’처럼 띄어 쓰는 것인데, ‘하겠어’의 ‘하-’가 떨어지면서 ‘-겠어’가 앞말에 붙은 것입니다. ‘만들어야 겠어’로 띄어 쓰면 안 됩니다.

■ 맛있다(○) / 맛 있다(×)

‘맛있다, 멋있다, 재미있다’와 ‘맛없다, 멋없다, 재미없다’는 자주 어울려 쓰여 하나의 말로 굳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맛있다, 멋있다, 재미있다 // 맛없다, 멋없다, 재미없다’로 붙여 씁니다.

■ 너밖에 없다(○) / 너 밖에 없다(×)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의 ‘밖에’는 붙여 써야 합니다. ‘오직 너뿐’이라는 의미일 때는 ‘밖에’가 ‘너를, 너뿐, 너만, 너도’의 ‘를, 뿐, 만, 도’와 같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씁니다. 이때는 항상 ‘없다, 앓다, 모르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 누가 왔다.”처럼 ‘안에’와 상대되는 ‘밖에’일 때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갈 때(○) / 갈때(×)

“집에 갈 때 나에게 얘기해. 같이 가게.”의 ‘때’는 “강남 갔던 제비도 때가 되면 온다.”처럼 앞말과 띄어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 때’도 ‘갈때’처럼 붙여 써서는 안 되고, 띄어 써야 합니다.

예) 갈 때, 먹을 때, 놀 때, 도움을 준 때

■ 첫 번째(○) / 첫번째(×)

‘첫 번째’로 띄어 써야 합니다. ‘두 사람, 세 친구’의 ‘두, 세’처럼 ‘첫’도 뒷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은 ‘첫, 두, 세, 네, 다섯’과 ‘번째’를 띄어 써야 합니다.

■ 스물여섯(○) / 스물 여섯(×)

‘스물여섯’은 붙여 써야 합니다.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까지는 붙여 쓰고 만이 넘을 경우에는 띄어 씁니다.

59: 오십구

367: 삼백육십칠

4214: 사천이백십사

5만 6321: 오만육천삼백이십일

12억 3456만 7898: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

♠ 한글 맞춤법 제44항 참고.

■ 이럴 수가(○) / 이럴수가(×)

“아니! 이럴 수가?”의 ‘이럴 수가’는 띄어 써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럴 이유는 없다'처럼 '이럴'은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왜냐하면(○) / 왜냐 하면(×)

“오늘은 너와 같이 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짝이랑 가기로 했거든.”의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이 줄어서 하나의 말로 굳어진 말입니다. '왜냐 하면'으로 띄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하나의 말로 굳어진 것이므로 띄어 쓰지 않습니다.

■ 보물은커녕(○) / 보물은 커녕(×)

“아무리 받을 파도 보물은커녕 보물 비슷한 것도 안 나오네?”의 '보물은커녕'은 붙여 씁니다. '커녕'은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 말로 항상 앞말과 붙여 씁니다. 그래서 '-은커녕'은 붙여 쓰고, '은 커녕'으로 띄어 쓰지 않습니다.

■ 학생입니다(○) / 학생 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의 '학생입니다'는 붙여 써야 합니다. '학생입니다'의 '입니다'는 '학생'이라는 말에 붙어 서술어를 만들어 줍니다. '입니다'는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 말로, 항상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예) 책상입니다 / 내 친구이어서 봐주었다. / 편지를 쓰는 것은 보고 싶어서입니다.

■ 쟁반같이(○) / 쟁반 같이(×)

‘쟁반같이’의 ‘같이’는 ‘쟁반처럼’의 ‘처럼’처럼 앞말과 붙여 써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는 천재 같다’에서 쓰인 ‘같다’에서 온 말이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떨어져 ‘처럼’처럼 앞말과 붙여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수 같은 사람’의 ‘같은’이나 ‘꽃과 같이 예쁘다’처럼 ‘-와 같이’의 ‘같이’는 앞말과 붙여 쓰지 않습니다.

예) 쟁반같이 둥근 달, 쟁반 같은 달, 쟁반과 같이 둥근 달

■ 질 게 뻥하다(○) / 질게 뻥하다(×)

“자기가 질 게 뻥하다.”의 ‘게’는 ‘것이’가 줄어서 된 말입니다. ‘것’이 앞말과 띄어 쓰는 말이므로 ‘게’도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예) 볼 것이 많다 / 볼 게 많다, 살 것이 많다 / 살 게 많다,
줄 것이 많다 / 줄 게 많다

■ 축하합니다(○) / 축하 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의 ‘축하합니다’는 ‘축하’에 ‘-하다’가 붙은 말입니다. 이처럼 풀이말을 만드는 ‘-하다’는 앞말과 붙여 씁니다.

예) 공부하다, 구경하다, 사랑하다, 일하다, 축하하다

■ 한 권(○) / 한권(×)

‘책 한 권’의 ‘권’은 책을 세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물건을 셀 때 쓰는 단위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 1, 2, 3 등이 올 경우에는 붙여 쓰는 관례가 있어,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예) 개: 사과 한 개 / 사과 1개

권: 책 한 권 / 책 1권, 사전 두 권 / 사전 2권

대: 자동차 세 대 / 자동차 3대, 버스 열 대 / 버스 10대

■ 홍길동 씨(○) / 홍길동씨(×)

“홍길동 씨, 나오세요.”의 ‘홍길동 씨’는 ‘홍길동’과 ‘씨’를 띄어 써야 합니다. ‘씨’는 성이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성이나 이름과 띄어 써야 합니다. 부르는 말로 쓰는 ‘홍 씨, 길동

씨, 홍길동 씨'도 띄어 써야 합니다. '씨'와 비슷한 '군, 양, 님'도 '홍길동 군, 홍길순 양, 홍길동 님'처럼 띄어서 씁니다.

3. 바르게 발음하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잘못 발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바른 발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 김밥: [김밥] (○) / [김빡] (×)

‘비빔밥, 덮밥’을 [비빔빡], [덮:빡]으로 발음하는 것과는 달리
‘김밥’은 [김:밥]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 끝을: [끄틀](○) / [끄출](×) / [끄슬](×)

‘끝을’을 [끄출]이나 [끄슬]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받침 다음에 ‘에, 을, 으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받침이 그대로 뒤에 연결되어 소리가 납니다. 그러므
로 [끄틀]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 예) 끝을: [끄틀](○) / [끄슬](×)

꽃아: [꼬차](○) / [꼬사](×)

꽃이: [꼬치](○) / [꼬시](×)

밭에: [바테](○) / [바세](×)

■ 바빠서: [바빠서](○) / [바빠서](×)

‘바빠서’를 [바빠서]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빠서]로 발음해야 합니다. ‘아파’를 [아파]라고 하지 않고 [아페]라고 발음하는 것도 같은 잘못입니다.

■ 밭이: [바치](○) / [바시](×)

‘밭이’는 [바시]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바치]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우리말에서 받침의 ‘ㄷ, ㅌ’은 ‘이’를 만나면 [디], [티]로 소리 나지 않고 [지], [치]로 소리 납니다. 이런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굳이’를 [구지]로 발음하는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흔히 ‘밭이’를 [바시]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예) 굳이: [구지]

■ 버스: [버스](○) / [빠스](×)

사람들이 쓸 때는 ‘버스’로 쓰면서도 [빠스]로 발음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버스]로 발음해야 맞습니다. 손으로 드는 가방 ‘백’을 [뺨]으로 발음하는 것도 같은 잘못입니다. [백]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 선릉: [설릉](○) / [선능](×)

‘선릉’을 [선능]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릉]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ㄴ’과 ‘ㄹ’이 만날 때에는 [ㄴㄴ]으로 소리 나는 경우와, [ㄹㄹ]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량’의 ‘생산’처럼 앞말이 홀로 쓰일 수 있으면 발음은 [생산냥]으로 [ㄴㄴ]이 됩니다. 그러나 ‘선릉’의 ‘선’은 홀로 쓰일 수 없는 말로, ‘선’과 ‘릉’을 떨어뜨려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ㄹㄹ]로 발음하면 됩니다.

- 예) (1) ㄹㄹ: 선릉[설릉] , 한류[할:류] (‘한류’ 열풍)
 (2) ㄴㄴ: 생산량[생산냥] , 의견란[의견:난]

■ 효과: [효과](○) / [효파] (×)

‘효과’를 [효:파]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과, 안과’를 [치파], [안:파]로 발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구별해 써야 할 말

이 장에서는 자주 혼동해 쓰는 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말은 뜻이 다르므로 구별해 써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시다.

■ 가리키다 / 가르치다

“우리 선생님은 공부를 잘 가리켜 주십니다.”의 ‘가리켜’는 ‘가르쳐’로 써야 합니다. ‘가리키다’는 손가락으로 어떤 방향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다’는 선생님 등이 모르는 내용을 알도록 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북쪽을 가리키다, 오른쪽을 가리키며 돌아가라고 했다.”처럼 쓰고, “그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친다, 모르는 문제를 잘 가르쳐 이해하기 쉽다.”처럼 씁니다. 이 두 말은 혼동을 자주 하나 구별해 써야 할 말입니다.

■ 그슬리다 / 그을리다

“놀러 갔다 왔더니 살이 햇볕에 그슬렸다.”의 ‘그슬렸다’는

‘그을렸다’로 써야 합니다. 햇볕에 살갓이 검게 되거나 촛불 따위의 검은 연기가 묻는 것은 ‘그을리다’이고, 사람이나 짐승의 털이 불에 닿아 약간 타는 것은 ‘그슬리다’입니다.

그을리다: 검게 되다

그슬리다: 약간 타다

예) 햇볕에 얼굴이 그을렸다, 솔이 불에 그을렸다.
 졸다가 촛불에 머리가 그슬렸다.

■ 꼬리 / 똥지

“새는 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새는 ‘꼬리’는 없고 ‘똥지’가 있습니다. 주로 새의 몸 뒤에 뼈죽 내민 깃을 가리킬 때에는 ‘꼬리’가 아니라 ‘똥지’라고 써야 합니다. ‘꼬리’는 네발짐승의 엉덩이 끝에 가늘고 길게 내민 부분을 가리킵니다.

예) 소의 꼬리 / 강아지 꼬리
 참새 똥지 / 제비 똥지

■ 넓이 / 너비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크기를 가리키고, ‘너비’는 물건

의 가로와 길이를 가리킵니다.

예) 방의 넓이 / 천의 너비는 대체로 일정하다.

■ 눈의 종류

눈은 ‘가루눈, 싸라기눈, 진눈깨비, 포슬눈, 함박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루눈’은 말 그대로 가루와 같이 내리는 눈을 말하고, 쌀알 같은 눈은 ‘싸라기눈’,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은 ‘진눈깨비’, 가늘고 성기게 내리는 눈은 ‘포슬눈’,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은 ‘함박눈’이라고 합니다.

■ 봉오리 / 봉우리

비슷한 말이지만 구별해서 써야 할 말 중에 ‘봉오리’와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오리’는 꽃이 피지 않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고, ‘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솟은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꽃봉오리’로 쓰고, ‘산봉우리’로 써야 맞습니다.

봉오리: 꽃봉오리

봉우리: 산봉우리

■ 비의 종류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보고 재미있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눈개, 이슬비, 가랑비, 작달비’ 등과 같은 예쁜 이름이 있습니다. ‘눈개’는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입니다. ‘이슬비’는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로, 눈개보다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가랑비’는 이슬비보다는 좀 굵지만, 소나기나 작달비보다는 가늘습니다. ‘작달비’는 굵고 역세게 내리는 비이고, 갑자기 내리다가 멈추는 비는 ‘소나기’입니다.

■ 늘리다 / 늘이다

“고무줄을 늘리지 마라.”의 ‘늘리지’는 ‘늘이지’로 써야 맞습니다. ‘늘리다’는 넓이나 능력 따위를 크게 하거나 많이 한다는 뜻이고, ‘늘이다’는 길이를 늘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길이는 똑같은데 잠시 늘어나게 하는 것은 ‘늘이다’를 써야 합니다.

늘이다: 원래 길이는 그대로 두고, 잠시 늘어나게 하다.

늘리다: 덧대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게 하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 엇가락을 늘이다
마당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

■ 다리다 / 달이다

“엄마는 아빠 바지를 달이신다.”의 ‘달이신다’는 ‘다리신다’로 써야 맞습니다. ‘다리다’는 다리미로 옷의 구김을 펴는 것이고, ‘달이다’는 한약이나 간장 따위를 끓여 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바지를 다리다, 와이셔츠를 다리다
간장을 달이다, 한약을 달이다

■ 달라요 / 틀려요

“그 애는 나와 틀려요.”의 ‘틀려요’는 ‘달라요’로 써야 맞습니다. ‘틀려요’는 “내 답은 틀려요.”처럼 답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고, ‘달라요’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할 때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틀려요.”, “우리는 성격이 틀려요.”처럼 ‘다르다’를 써야 할 자리에 ‘틀리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 다르다(↔같다): 아들이 아버지와 얼굴이 다르다.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

틀리다(↔맞다): 답이 틀리다, 계산이 틀리다

■ 마술 / 요술

‘마술’은 재빠른 손놀림이나 특수한 장치를 써서 눈속임으로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술’은 동화와 같은 상상의 세계에서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술’을 부릴 수는 있지만 ‘요술’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 명태의 다른 이름

우리가 먹는 ‘생태, 동태, 북어, 황태, 노가리’는 모두 ‘명태’라는 생선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얼리지도 말리지도 않은 것을 ‘생태’라고 합니다. 명태를 얼린 것은 ‘동태’, 말린 것은 ‘북어’입니다. 얼려서 말린 누르스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황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발견 / 발명

“난 숙제해 주는 로봇을 발견했어.”의 ‘발견’은 ‘발명’으로 써야 맞습니다. ‘발견’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미처 찾지 못한 사물, 진리 등을 알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발명’은 이 세상에는 없는, 쓸모 있는 물건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발견’이고, 없던 것을 만들

어 내는 것은 ‘발명’입니다.

예) 아메리카 대륙 **발견** /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사람을 대신할 로봇 **발명** / 에디슨은 축음기, 전등, 영사기 등을 **발명**하였다.

■ 벌리다 / 벌이다

“다리를 더 벌여 봐.”의 ‘벌여’는 ‘벌려’로 써야 맞습니다. ‘벌여’는 ‘벌이다’에 ‘-어’가 붙은 것이고, ‘벌려’는 ‘벌리다’에 ‘-어’가 붙은 것입니다. ‘**벌리다**’는 물건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벌이다**’는 물건들을 늘어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여 진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리는 ‘벌이는’ 것이 아니고 ‘벌리는’ 것입니다.

예) 다리를 **벌리다**, 입을 **벌리다**
잔치를 **벌이다**, 소동을 **벌이다**

■ 벗겨지다 / 벗어지다

“엄마 신발이 커서 자꾸 벗겨져요.”의 ‘벗겨져요’는 ‘벗어져요’로 써야 합니다. ‘**벗겨지다**’는 신발을 벗기 위해서 힘을 들여 그 신발이 떨어져 나갔을 때 쓰는 말이고, ‘**벗어지다**’는 벗고 싶지

않았는데 신발이 저절로 발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쓰는 말입니다. 벗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리 써야 합니다. 방에 들어가려고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 경우이므로 ‘벗겨지다’를 써야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된 경우는 ‘벗어지다’를 써야 합니다.

예) (1) 벗겨지다

묵은 때가 벗겨지다, 엄마! 신발이 잘 안 벗겨져요.

(2) 벗어지다

넘어져서 무릎이 벗어졌다, 엄마! 신발이 너무 커서 자꾸 벗어져요.

■ 비추다 / 비치다

“구석에 손전등을 비쳤다.”의 ‘비쳤다’는 ‘비쳤다’로 써야 맞습니다. ‘비추다’는 무엇인가를 보려고 손전등이나 촛불 등으로 빛을 어떤 장소에 빛나게 하는 것이고, ‘비치다’는 빛이 저절로 빛나는 것입니다. ‘비추다’는 ‘손전등을 비추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다’처럼 ‘무엇을 비추다’라고 쓰고, ‘비치다’는 ‘빛이 비치다, 모습이 비치다’처럼 ‘무엇이 비치다’라고 씁니다.

예)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다, 무대에 조명을 비추다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다, 불빛이 비치다

■ 별 이름

밤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 가운데 ‘금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잠깐 볼 수 있는데, ‘금성’은 언제 보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새벽에 보일 때는 ‘샬별, 계명성’이라고 하고, 초저녁에 보일 때에는 ‘어둠별, 개밥바라기, 태백성’이라고 합니다.

■ 십자말풀이

‘십자말풀이’는 바둑판 같은 바탕에 해답의 글자 수만큼 빈칸을 가로와 세로로 엇갈리게 배열해 놓고, 가로로 답을 하는 문제와 세로로 답을 하는 문제를 풀어서 빈칸을 채우는 놀이를 말합니다. 그 판 모양이 한자의 열십자[十]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 썩이다 / 썩히다

“부모님 속 좀 작작 썩혀라.”의 ‘썩혀라’는 ‘썩여라’로 써야 합니다. 걱정이나 근심으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썩이다’를 씁니다. ‘썩히다’는 음식물 등의 물질을 부패시키거나, 물건이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에 쓰는 말입니다.

예) 속을 썩이다, 가슴을 썩이다
쓰레기를 썩히다, 능력을 썩히지 마라.

■ 식해 / 식혜

“식해는 잣을 띄워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에서 ‘식해’는 ‘식혜’로 써야 맞습니다. ‘식해’는 생선을 발효한 젓갈과 비슷한 음식을 말하고, 밥알이나 잣을 띄워 마시는 것은 ‘식혜’입니다.

■ 알갱이 / 알맹이

‘알갱이’는 곡식, 모래 따위와 같이 작고 동글동글하며 단단한 물질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맹이’는 껍질이나 껍데기에 싸여 있는 작은 물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알갱이’는 작고 동글동글한 물질이면 곡식이건 모래건 무엇에든 쓸 수 있지만, ‘알맹이’는 껍질이 있는 것만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 보리 알갱이(○), 보리 알맹이(○)
모래 알갱이(○), 모래 알맹이(×)

■ 양감질

‘양감질’은 한 발을 들고 한 발로만 뛰는 짓을 말합니다. ‘양감질로 깡충깡충 뛰는 모습’처럼 쓸 수 있습니다.

■ 윗옷 / 옷옷

“날씨가 추우니 겉에 윗옷을 입어라.”에서 ‘윗옷’은 ‘옷옷’이라고 해야 합니다. ‘윗옷’과 ‘옷옷’을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바지나 치마와 짝을 이루어 위에 입는 옷은 ‘윗옷’입니다. 그리고 남방이나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입는 외투나 점퍼 따위는 ‘옷옷’입니다. ‘아래옷’과 짝이 되는 것은 ‘윗옷’이고, ‘속옷’과 짝이 되는 것은 ‘옷옷’입니다.

예) 바지는 아래옷, 셔츠는 윗옷

내복은 속옷, 점퍼는 옷옷

■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

우리말에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가 코 고는 소리는 ‘콜콜’, 아빠가 코 고는 소리는 ‘쿨쿨’이라고 합니다. ‘콜콜’과 ‘쿨쿨’은 소리의 크기를 달리 나타내는 말인데, 작은 소리를 나타내는 ‘콜콜’은 ‘작은말’, 큰 소리를 나타내는

‘쿨쿨’은 ‘큰말’이라고 합니다. 별빛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날 때와 보석이 눈이 부시게 ‘빽빽빽빽’ 빛날 때처럼 빛의 세기가 다를 때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반짝반짝’처럼 여러개 빛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여린말’이라고 하고, ‘빽빽빽빽’처럼 세게 빛나는 말은 ‘센말’이라고 합니다.

<작은말>	<큰말>	<여린말>	<센말>
고깃고깃	구깃구깃	반짝반짝	빽빽빽빽
달랑달랑	덜렁덜렁	댕댕	땡땡
생글생글	싱글싱글	잘가닥	짤가닥
줄줄	줄줄	달가당	딸까당

■ 일절 / 일체

식당 등의 벽에 ‘식사 일절’이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절’은 ‘일체’로 써야 맞습니다. ‘일절’은 ‘전혀, 절대로, 도무지’라는 뜻으로, “출입을 일절 금하다, 과자는 일절 먹지 않는다.”처럼 씁니다. ‘일절’은 뒤에 항상 부정적인 말이 옵니다. ‘식사 일절’은 ‘모두, 죄다’라는 뜻을 가진 ‘일체’를 써야 합니다.

예) 식사 **일체**, 재산 **일체**를 사회에 기부하다.

과자는 **일절** 먹지 않는다, 출입을 **일절** 금하다.

■ 잃다 / 잇다

“지갑을 잊어버렸어.”라고 할 때는 ‘잊어’가 아니라 ‘잃어’를 써야 맞습니다.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물건을 길에 떨어뜨려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잃은 것’이고, 친구와 만나자고 약속한 것을 생각해 내지 못한 경우는 ‘잊은 것’입니다. ‘잃다’는 ‘찾다’와 짝을 이루고, ‘잊다’는 ‘기억하다’와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지갑은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잃다’를 써야 맞습니다.

예) 지갑을 잃다(↔찾다), 돈을 잃다(↔찾다)

약속을 잇다(↔기억하다), 친구의 이름을 잇다(↔기억하다)

■ 입 / 부리 / 주둥이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신체 기관입니다. 새들은 이런 기관이 뿔처럼 딱딱하고 길고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때는 ‘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참새나 독수리는 ‘입’이 아니라 ‘부리’로 먹이를 먹는다고 해야 합니다. ‘주둥이’는 사람이나 동물, 새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사람에게 쓰면 점잖지 않은 표현이라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 작다 / 적다

“나는 용돈이 작다.”의 ‘작다’는 ‘적다’라고 써야 합니다. ‘작다’는 크기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가리키고, ‘적다’는 수나 양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이고, ‘적다’의 반대말은 ‘많다’인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예) (1) 작다

키가 작다↔키가 크다, 발이 작다↔발이 크다,

옷이 작다↔옷이 크다

(2) 적다

양이 적다↔양이 많다, 관심이 적다↔관심이 많다,

수입(용돈)이 적다↔수입(용돈)이 많다

■ 전통 놀이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날(음력 1월 15일)이나 팔월 한가위(추석, 음력 8월 15일)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고무줄놀이’는 주로 여자 아이들이 고무줄을 가로지르고, 노래에 맞추어 줄을 넘으면서 고무줄이 발에 닿지 않게 하거나 고무줄에 다리를 높이 거는 놀이입니다.

‘꼬리잡기’는 어린이들이 하는 민속놀이의 하나입니다. 두 편

으로 나누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일렬로 늘어서서 맨 앞사람이 상대편의 맨 뒷사람을 붙잡는 방법과 한 명의 술래가 일렬로 늘어진 사람 가운데 맨 뒷사람을 붙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슬치기’는 구슬을 가지고 상대방의 구슬을 맞추거나 동그랗게 원을 그려 놓고 그곳에 구슬을 넣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구슬을 따먹는 놀이입니다.

‘그림자밟기’는 달밤에 술래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밟는 놀이입니다.

‘땅따먹기(땅뺏기)’는 정한 땅에 각자의 말을 통긴 대로 금을 그어서 땅을 빼앗아 가며 노는 놀이입니다.

‘돌치기(비사치기)’는 손바닥만 한 납작한 돌을 세워 놓고 열마쯤 떨어진 곳에서 돌을 던져 맞추거나 발로 돌을 차서 맞추어 넘어뜨리는 놀이입니다.

■ 조리다 / 졸이다

어머니께서 생선이나 고기, 야채 등에 양념을 하고 그 간이 배어들게 약한 불에서 요리하시는 것은 ‘조리다’입니다. ‘졸이다’는 국물의 양이 적어지게 계속 끓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생선을 조리다(생선 조림), 감자를 간장에 조리다(감자조림)

찌개의 국물을 알맞게 졸이다, 한약을 졸이다

■ 쫓다 / 좇다

‘쫓다’는 실제로 몸을 움직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좇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뜻이나 흐름을 따르거나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아버지를 **쫓아** 문구점에 갔다.

아버지의 뜻을 **좇아**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 크레용 / 크레파스

‘크레파스’와 ‘크레용’은 모두 막대 모양으로 생긴 미술 도구입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들은 조금 다릅니다. ‘크레파스’는 부드러워 색이 잘 칠해지는 특징이 있는 데에 비해, ‘크레용’은 딱딱하여 힘을 주어 칠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레파스’는 ‘크레용’과 ‘파스텔’의 장점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 혼동 / 혼돈

‘혼동’과 ‘혼돈’은 흔히 혼동해서 쓰는 말입니다. ‘혼동’은 이것과 저것으로 구별되는 것을 착각을 일으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혼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1) 혼동

답을 혼동하지 마라.

아버지 목소리와 아들 목소리가 혼동된다.

(2) 혼돈

사회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다.

5. 바르게 쓰는 외래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적을 때는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은 이 표기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잘못 쓰고 있는 외래어를 살펴보겠습니다.

■ 디지털(○) / 디지탈(×)

‘디지털 세상’의 ‘디지털(digital)’을 ‘디지탈’로 쓰기도 하는데 잘못입니다. ‘디지털’로 적어야 맞습니다.

■ 로봇(○) / 로보트(×)

“아빠! 새로 나온 로봇 사 주세요.”의 ‘로봇(robot)’을 ‘로보트’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로봇(robot)’의 ‘봇’처럼 그 나라 말에서 짧게 소리 나는 것은 마지막 자음을 받침으로 적어야 합니다. ‘컵(cup), 바스켓(basket)’의 ‘p, t’가 이에 속하는 말입니다.

■ 마요네즈(○) / 마요네스(×)

“샐러드에는 마요네즈가 소스로 들어가야 맛있다.”의 ‘마요네즈(mayonnaise)’는 ‘마요네스’라고 하면 틀립니다. 원어의 끝이 ‘se’이어서 ‘마요네스’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어서 프랑스어식으로 읽은 ‘즈’로 써야 맞습니다.

■ 모차르트(○) / 모짜르트(×)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모차르트(Mozart)’를 ‘모짜르트’라고도 하는데, ‘모짜르트’로 쓰면 잘못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독일어에서 ‘모차르트’의 ‘츠’는 ‘츠’로 소리 나므로 ‘모차르트’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바통(○) / 배턴(○) / 바톤(×)

“이어달리기에서 바톤을 주고받는 일은 중요하다.”에서 ‘바톤’은 ‘바통’이나 ‘배턴’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바톤’이라고 쓰는데, 프랑스어 ‘바통’과 영어의 ‘배턴’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바통’이나 ‘배턴’으로 쓰거나 계주를 할 때 쓰는 봉이라는 뜻의 ‘계주봉’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바흐(○) / 바하(×)

음악가 ‘바흐(Bach)’를 ‘바하’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흐’는 독일 사람이므로 독일어식으로 ‘바흐’로 써야 맞습니다.

■ 사인(○) / 싸인(×)

“인기 가수의 사인을 모으는 게 취미다.”의 ‘사인(sign)’을 자주 ‘싸인’이라고 쓰고 [싸인]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인’은 ‘사인’으로 쓰고 [사인]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서비스(○) / 써비스(×)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의 ‘서비스(service)’도 ‘써비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서비스’로 쓰고 [서비스]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센터(○) / 센타(×)

“엄마는 문화 센터에서 수영을 배우신다.”의 ‘센터(center)’를

‘센타’라고도 하는데, ‘센타’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 센티미터(○) / 센치미터(×)

“철수의 키는 약 140센티미터이다.”의 ‘센티미터 (centimeter)’를 ‘센치미터’라고도 하는데, ‘센치미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 소시지(○) / 소세지(×)

“햄과 소시지는 조금 다르다.”의 ‘소시지(sausage)’는 ‘소세지’로 더 많이 씁니다. 그러나 ‘소세지’는 ‘소시지’를 잘못 쓴 것입니다. ‘소시지’로 써야 맞습니다.

■ 슈퍼(○) / 수퍼(×)

~ 슈퍼마켓(○) / 수퍼마켓(×)

“슈퍼에 가서 비누 좀 사 와라.”의 ‘슈퍼(super)’를 ‘수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슈퍼’로 써야 맞습니다. ‘슈퍼’는 ‘슈퍼마켓’을 줄여 쓰는 말입니다. ‘슈퍼마켓(supermarket)’은 ‘슈퍼맨(superman), 슈퍼스타(superstar), 슈퍼컴퓨터(supercomputer)’ 등처럼 ‘슈퍼’로 써야 맞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의 ‘켓’을 ‘켈’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받침의 표기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으로 써야 맞습니다.

■ 에스컬레이터(○) / 에스칼레이터(×)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마세요.”의 ‘에스컬레이터(escalator)’를 ‘에스칼레이터’로 자주 쓰는데, ‘에스컬레이터’로 써야 맞습니다. 철자가 ‘cal’이라서 ‘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의 발음은 ‘컬’입니다.

■ 자장면(○) / 짜장면(×)

“오늘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자.”라고 많이 하는데, ‘짜장면’은 ‘자장면’으로 써야 맞습니다. 이 말은 중국에서 온 말이므로 중국어 발음대로 ‘자장면’으로 써야 합니다. 물론 읽을 때도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으로 읽어야 합니다.

■ 주스(○) / 쥬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다.”의 ‘주스(juice)’를 ‘쥬스’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 초콜릿(○) / 초콜렛(×)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의 ‘초콜릿(chocolate)’은 많은 사람들이 ‘초콜렛’이나 ‘초코렛’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발음에 따라 ‘초콜릿’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 커트(○) / 컷(×)

“나는 커트 머리가 잘 어울린다.”의 ‘커트(cut)’를 ‘컷’으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한 장면을 말하거나 촬영을 할 때 멈추라는 뜻으로 할 때는 ‘컷(cut)’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 케이크(○) / 케익(×)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아라.”의 ‘케이크(cake)’를 ‘케익’이라고도 하는데 ‘케익’은 잘못된 말입니다. ‘케이크’로 써야 맞습니다.

■ 케첩(○) / 케참(×)

“감자튀김은 케첩에 찍어 먹어야 제 맛이다.”의 ‘케첩

(ketchup)’을 ‘케첩’으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케첩’으로 써야 맞습니다.

■ 크리스마스 캐럴(○) / 캐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다.”의 ‘캐럴(carol)’은 ‘캐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캐럴’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텔런트(○) / 탈렌트(×)

“그 드라마에는 유명한 텔런트들이 많이 나온다.”의 ‘텔런트(talent)’를 ‘탈렌트’라고도 하는데, ‘탈렌트’는 잘못입니다.

■ 텔레비전(○) /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의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으로 써야 합니다. ‘전 / 전’, ‘천 / 천’은 ‘ㄷ’로 쓰거나 ‘ㄷ’로 쓰거나 발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 천’으로 쓰지 않고, ‘전’과 ‘천’으로 씁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television)’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을 ‘테레비’라고도 하는데, ‘테레비’는 ‘텔레비전’을 아무렇게나 줄여 쓴 말입니다. ‘텔레비전’으로 써야 맞습니다.

■ 파이팅(○) / 화이팅(×)

“우리 팀, **파이팅(fighting)!**”의 ‘파이팅’을 ‘화이팅’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어에서 [f]로 소리 나는 것은 ‘ㅍ’으로 적어야 합니다. ‘파일(file), 필름(film), 필터(filter)’ 등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포클레인(○) / 포크레인(×)

“공사장에서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다.”의 ‘포클레인(Poclaim)’을 ‘포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발음대로 ‘포클레인’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포클레인’은 우리말로 ‘삽차’라고도 합니다.

■ 프라이팬(○) / 후라이팬(×)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했다.”의 ‘후라이팬’과 ‘계란 후라이’는 ‘**프라이팬(frypan), 계란 프라이(fry)**’라고 써야 맞습니다. 이 말은 원어가 ‘frypan, fry’이고, 첫소리가 [f]로 발음 나는 말입니다. [f]로 발음 나는 것은 ‘ㅍ’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 피자(○) / 핏자(×)

“피자에는 콜라가 어울린다.”의 ‘**피자(pizza)**’를 ‘핏자’라고 쓰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 하이라이트(○) / 하일라이트(×)

“스포츠 뉴스에서는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보여 준다.”의 ‘**하이라이트(highlight)**’를 ‘하일라이트’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하이(high)’와 ‘라이트(light)’가 합쳐진 말이므로 ‘하이라이트’로 써야 맞습니다.

찾아보기

가랑비	65
가려고	1
가루눈	64
가르치다	62
가리키다	62
간판장이	46
간판쟁이	46
갈려고	1
감자조림	76
강강술래	75
갈아	2
갈애	2
같이	55
개	56
개구장이	46
개구쟁이	46
개밥바라기	70
거 봐	51
거봐	51
거야	51
거예요	3
거예요	3
검둥이	39
계	56
계란 프라이	86
계란 후라이	86

계명성	70
고마와요	4
고마워요	4
고무줄놀이	75
-고요	5
고집장이	46
고집쟁이	46
곶배기	6
곶빼기	6
구슬치기	76
-구요	5
군	58
굳이	60
권	57
귀동이	39
귀둥이	39
그릇째	47
그릇채	47
그슬리다	62
그을리다	62
금새	7
금성	70
금세	7
김밥	59
김치찌개	48
김치찌게	48
까매	37
깨끄시	8

깨끗이	8
깨끗히	8
꺼매	37
꺼야	24
껍질째	47
껍질채	47
꼬리	63
꼬리잡기	75
꼬셨다	9
꼬시다	8
꼬심	9
꼬였다	9
꼬이다	8
꼬임	9
꽂지	63
꽃이었다	10
꽃이었다	10
꾸다	32
꿔다	32
끝을	58
끼다	11
끼어들기	11
끼어들다	11
끼었다	11
끼어들기	11
끼어들다	11
끼였다	11
끼이다	11

-ㄴ 게	56
-ㄴ 때	53
나는 슈퍼맨	13
나라	14
나라오르다	14
낙다	12
낙시터	12
낙다	12
낙시터	12
난장이	46
난쟁이	46
نال고	13
날며	13
날아	14
날아오르다	14
날으는 슈퍼맨	13
내가	16
너 밖에	53
너가	16
너머	14
너비	63
넓이	63
넘어	14
넘어질 거야	51
넘어질거야	51
네가	16
노가리	67
노래	37

놀이	75
누레	37
눈의 종류	64
늑께	15
는 데	52
-는 때	53
는개	65
-는걸	23
는데	52
-는지	24
늘리다	65
늘이다	65
늦게	15
늦께	15
니가	16
님	58
다람쥐님	49
다람쥐님	49
다르다	66
다리다	66
달걀찌개	48
달걀찌개	48
달라요	66
달이다	66
담가	17
담갔다	17
담귀	17
담꿨다	18

대	57
-던가 던가	20
-던가	20
도와	5
도워	5
돌	18
돌부리	19
돌뿌리	19
돌잔치	18
돌치기	76
툇	18
툇잔치	18
동이	38
동태	67
동태찌개	48
동태찌개	48
돼라	19
되라	19
된장찌개	48
된장찌개	48
둥이	38
-든가 든가	20
-든가	20
들러서	22
들렸다	22
들려서	22
들렸다	22
들르다	22

들리다	22
디지털	79
디지털	79
땅따먹기	76
땅뺏기	76
때	53
떡볶기	23
떡볶이	23
떡볶기	23
똑같아	2
똑같애	2
-르 게	56
-르 때	53
-르가	24
-르걸	23
-르고	24
-르까	24
-르꼴	23
-르꼬	24
-르지	24
-르찌	24
로보트	79
로봇	79
-를 때	53
마술	67
마요네스	80
마요네즈	80
막동이	39

막둥이	39
만들어야겠어	52
만듦	25
만듬	25
맛없다	53
맛있다	53
맞추다	26
맞춰	26
맞혀	26
맞히다	26
머리결	27
머릿결	27
먹는 데	52
먹는데	52
먹어요	42
먼지떨이	46
먼지털이	46
멈쳐	28
멈쳤습니다	28
멈춰	28
멈췄습니다	28
멋없다	53
멋있다	53
멋장이	46
멋쟁이	46
며칠	29
명태의 다른 이름	67
몇 일	29

모짜르트	80
모차르트	80
뭐예요	3
뭐예요	3
미장이	46
미쟁이	46
바라	30
바람	30
바랐다	30
바래	30
바람	30
바랬다	30
바빠서	60
바톤	80
바통	80
바하	81
바흐	81
밖에	53
반드시	31
반듯이	31
발견	67
발명	67
방구	32
방귀	32
밭이	59
배고픔	33
배고픔	33
배턴	80

버스	60
벌리다	68
벌이다	68
벗겨지다	68
벗어지다	68
별 이름	70
보려고	1
보물은커녕	55
볼려고	1
봉오리	64
봉우리	64
부대찌개	48
부대찌개	48
부등켜안고	34
부등켜않고	34
부리	74
부치다	35
복어	67
붙이다	35
비사치기	76
비의 종류	65
비추다	69
비치다	69
빨개져서	36
빨게져서	36
빠스	60
사인	81
삼차	86

셋별	70
생산량	61
생선 조림	76
생태	67
서비스	81
선릉	61
센치미터	82
센타	81
센터	81
센티미터	81
소나기	65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	72
소세지	82
소시지	82
수	54
수의 띄어쓰기	54
수퍼	82
숟가락	37
슈퍼	82
스물여섯	54
식사 일절	73
식해	71
식해	71
심술장이	46
심술쟁이	46
십자말풀이	70
짜라기눈	64
짜인	81

쌍둥이	38
쌍둥이	38
씨비스	81
씩여	70
씩이다	70
씩혀	70
씩히다	70
씨	57
아기	39
아기씨	39
아우님	50
아웃님	50
아지랑이	40
아지랭이	40
안	41
안 먹어	41
안과	61
않 먹어	41
않	41
알갱이	71
알맹이	71
알아맞추다	26
알아맞히다	26
양감질	72
애기	39
애기씨	39
양	57
양복장이	46

양복쟁이	46
어둠별	70
언덕배기	6
언덕빼기	6
없습	45
없습니다	45
없음	45
에스칼레이터	83
에스컬레이터	83
예쁘다	41
-오	42
오뚝	43
오뚝하다	43
오뚜기	43
오뚝	43
오뚝이	43
오뚝하다	43
오십시오	42
오십시요	42
옹기장이	46
옹기쟁이	46
왜냐하면	55
웬	44
웬일	44
웬지	44
-요	42
요술	67
욕심장이	46

욕심쟁이	46
웃웃	72
웬	44
웬일	44
웬지	44
윗웃	72
유기장이	46
유기쟁이	46
-은 때	53
-은커녕	55
-을 때	53
의견란	61
이다	55
이럴 수가	54
이쁘다	41
이슬비	65
-이였다	9
-이였다	9
일절	73
일체	73
없다	74
입	74
있슴	45
있습니다	45
있음	45
있습니다	45
잇다	74
자장면	83

102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 2001

작다	75
작달비	65
잡아요	42
-장이	46
재떨이	46
재미없다	53
재미있다	53
재털이	46
-쟁이	46
적다	75
점장이	46
점쟁이	46
젓가락	37
조리다	76
조림	76
졸이다	76
졸임	76
좃다	77
주둥이	74
주스	83
쥬스	83
진눈깨비	65
질 게 뻔하다	56
짜장면	83
-째	47
쫓다	77
찌개	48
찌게	48

창피	48
창피하다	48
-채	47
챙피	48
챙피하다	48
첫 번째	54
초코렛	84
초콜렛	84
초콜릿	84
축하합니다	57
치과	61
캐럴	85
캐롤	85
커녕	55
커트	84
컷	84
케이크	84
케익	84
캐참	84
캐첩	84
크레용	77
크레파스	77
크리스마스 캐럴	85
탈렌트	85
태백성	70
텔런트	85
테레비	85
텔레비전	85

텔레비전	85
토끼님	50
토끼님	50
통째로	47
통채로	47
틀려요	66
틀리다	66
파래	37
파이팅	86
파일	86
피레	37
포슬눈	65
포크레인	86
포클레인	86
프라이	86
프라이팬	86
피자	87
핏자	87
하고	5
하구	5
하애	37
하이라이트	87
하일라이트	87
학생입니다	55
한 권	57
한류	61
함박눈	64
해님	49

햇님	49
햇별	49
햇살	49
했슴	45
했습니다	45
했음	45
했습니다	45
허예	37
형님	49
혼돈	77
혼동	77
홍길동 씨	57
화이팅	86
화일	86
황태	67
효과	61
후라이	86
후라이팬	86
흰동이	38
흰동이	38

◇ 담당 연구원: 정 희 창(어문규범연구부)

교정·교열 : 이 정 미(분석요원)
이 금 희(분석요원)
김 영 덕(조사요원)
최 재 희(조사요원)
정 숙(조사요원)

◇ 내용 문의: 전화 (02) 771-9909
인터넷 www.korean.go.kr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 2001-초등용-

2001년 12월 21일 인쇄

2001년 12월 22일 발행

펴낸이 남 기 심

펴낸곳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02) 669-9775 / 전송 (02) 669-9777

www.korean.go.kr